

# 해복한 신노년층 은퇴발견소

2017\_Vol. 02

SUPPORTED BY  
**MIRAE ASSET**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4차 산업혁명

# 新노년층 일자리

# 경제학

**특집** 전국민 IRP 시대 개막

소득 있는 사람은 누구나 IRP 가입 가능

해외 전문가 인터뷰 100세 인생, 다단계 삶을 준비하라

머니 인사이트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가 답이다



은퇴 뒤 10만 시간  
준비하면  
행복해집니다



만 시간

■ 은퇴 뒤 가용시간 108,463시간(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5. 10)

# 행복한 은퇴설계의 시작! 미래에셋생명

은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뒤에 보낼 시간은 무려 10만 시간!

연금전문 보험회사와 함께, 은퇴 뒤 10만 시간의 행복을 설계하세요



# Contents

행복한은퇴발전소 · Vol. 02

## 커버스토리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新)노년층의 일자리 경제학

- 06 **01** 4050세대, 은퇴 후 어떤 일을 하게 될까?
  - 12 **02** 4050세대, 신노년으로 진화한다
  - 15 **03** 앞으로 10년, 뜨는 직업 10선
  - 26 **04** 新지식·기술, 어디서 배우나?
- 
- 29 **특집** | 전 국민 IRP 시대 개막
  - 40 **인터뷰** | 린다 그레트 & 앤드루 스콧 교수 100세 인생, 다단계 삶을 준비하라
  - 48 **1인 1기** | 은퇴 후 인기 인터넷 카페 '박쌤 전산회계' 운영하는 박용범 씨
  - 54 **머니 인사이트** |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가 답이다
  - 62 **웰 에이징** | 행복한 노후 망치는 중대 질병 피하려면?
  - 68 **잇츠 라이프** | 황혼이혼 피하려면? 부부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바꿔라!
  - 74 **책과 함께** | 자녀들에게 '부자 되는 기초 체력'을 키워주라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新)노년층의 일자리 경제학



40, 50대 중·장년은 한국의 주요 인구 계층이며 수명, 건강, 학습 능력 면에서 윗세대와 확연히 다르다. 신(新)노년층으로 진화할 역량이 충분하다.

하지만 한국이 직면한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기존의 사고방식과 일만 고집한다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일자리 치즈가 옮겨진 위치를 분석하고 그에 맞게 자신을 재교육하고 기술을 익힌다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번 호 커버스토리에서는 4050세대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특징을 짚어보고,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은퇴 후 일자리 전략과 유망 직업, 교육기관 등에 대해 알아본다.

- 1** 4050세대, 은퇴 후 어떤 일을 하게 될까?
- 2** 4050세대, 신노년으로 진화한다
- 3** 앞으로 10년, 뜨는 직업 10선
- 4** 新지식·기술, 어디서 배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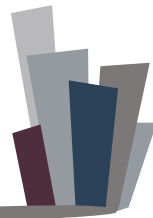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노년층의 일자리 경제학

# 4050세대, 은퇴 후 어떤 일을 하게 될까?

1, 2차 베이비부머에 속하는 지금의 40, 50대는 수명, 건강, 학습 능력,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윗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앞으로 신(新)노년층을 형성할 4050세대의 노후 환경 역시 지금과 다른 모습일 것이다. 이들이 맞이할 노후 일자리 환경은 4차 산업혁명과 고령 산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일자리 형태도 파트타임이나 1인 기업 등이 많아진다. 신노년층은 지금과는 크게 다른 환경과 능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전혀 다른 풍경으로 진입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려면 노후 일자리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글 김경복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



### 4차 산업혁명은 40, 50대 노후에 어떻게 작용할까?

# 인사 관련 일을 했던 A 씨는 대학원에서 인사를 더 깊이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직업 상담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직업 상담 기관에 취업했다. B 씨는 50대 초반이지만 드론 조종과 3D 프린팅을 배우러 다니고 있다. 퇴직하면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이다. 대기업을 다니던 C 씨는 60세에 퇴직해서 거래업

체에 부사장으로 들어갔다. 다니던 회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2, 3년 정도 기한으로 영업을 해줄 예정이다.

여러분은 퇴직을 하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만약 C 씨의 사고에 머문다면, 이는 과거지향적인 태도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다. 수

명이 짧을 때 C 씨의 선택은 훌륭한 전략이지만, 장수 사회에서 C 씨는 60세 이후 20년 동안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향후 노년층에 접어들게 될 40, 50대 장년층은 일자리에 관한 한 미래지향적이 돼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퇴직 전후 일자리 사정을 살펴보면, 50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속내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50대를 전후해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하고 제2의 직장을 찾으면서 고용 변화가 심하다. 퇴직하고 난 뒤에 갖는 제2의 직장은 임금이 낮고 고용의 질은 떨어진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임금은 거의 절반씩 떨어진다. 비정규직 비중이 50대 35%에서 60대는 62%로 증가한다. 70세 즈음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고 공공근로 등의 일을 찾는다.

이러한 노후 일자리 과정은 장수와 4차 산업혁명이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땀질식이며 단기적이다. 별다른 목표 없이 고용을 최대한 연장해보자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길어봐야 70세가 되기 전에 할 일이 없어지고 보람 또한 찾기 힘들다. 이는 병의 원인을 치유하기보다 증상을 완화하면서 버티보자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70대에도 팔팔하게 일하게 될 40, 50대에게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40, 50대는 자신만의 노후 일자리 과정을 개척해가야 한다.

### 미래 '신노년층'의 달라지는 일자리 환경 1

산업 중심이 4차 산업혁명과 시니어 비즈니스로 이동 1차, 2차 베이비부머(1955~1974)를 형성하고 있는 40, 50대는 수명, 건강, 학습 능력, 문화 면에서 윗세대와는 현저히 다르다. 현재 60대는 초대 줄 이상이 16%인 데 반해 50대는 30%, 40대는 그 비율

이 50%에 이른다. 50대는 인터넷 이용률이 95%이고 스마트폰 이용률은 92%인 반면, 60대는 이 비율이 각각 75%, 64%에 그친다. 지금의 40, 50대 베이비부머들은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신(新)노년층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들 신노년층이 맞게 될 일자리 환경 또한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

첫째, 일자리 치즈가 4차 산업혁명과 시니어 비즈니스로 이동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단순 일자리들은 많이 줄어드는 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들은 늘어난다. 사람이 농약을 치고 산림을 관리하는 일을 드론이 대신 해준다. 3D프린팅, 가상현실(VR) 등의 시장이 확장되면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들은 드론 조종사, 사물인터넷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전문가 등으로 크게 분류하는 정도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자리들이 생길 것이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사람이 와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고용할 수 있다. 당국이 신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면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시대를 앞선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때 '이런 걸 지금 배워봤자 뭐하나, 당장 써먹을 데도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지는 모른다. 다만 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장이 확대될 때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은 분명하다.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는 고령화 초기보다는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산업으로 등장하게 된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부터 30년간 1200만 명이 증가할 것이다. 건강하면서 재산도 있는 65~74세 연령층을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240만



명, 이후 10년간 190만 명이 늘어나 20년 동안 총 430만 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 대신 대학 학령 연령에 해당하는 18~21세는 향후 10년간 100만 명이 감소한다. 이제 산업의 중심은 시니어 비즈니스로 이동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버 여행 전문가, 노인 거주 컨설팅, 노인 심리 상담사, 직업 상담사 같은 직업이 있다.

치즈가 옮겨갔을 때는 '내 치즈가 어디 갔나',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된다. 치즈가 있는 곳을 새로 찾아 나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로 옮겨가는 치즈를 찾으러 가야 한다. 퇴직 후 재교육에서 아직은 신기술 분야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이야말로 기존 산업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일자리 시장을 봐야 할 때다. 기술 자격증도 1회, 2회 때는 취득하기가 쉽다. 이 분야를 선점하면 노후의 일자리를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미래 '신노년층'의 달라지는 일자리 환경 2

### 파트타임 등 노후에 적합한 일자리 형태 확대

**둘째, 일자리 형태가 신노년층에게 우호적으로 변한다.** '긱(Gig) 경제'가 유행하고 있다. 긱이란 1920년대에 재즈 공연을 할 때 공연장 주변에서 필요에 따라 연주자를 섭외하는 것을 말하는데, '긱 경제'는 정규적인 고용을 벗어나서 자발적인 비정규직 일자리 형태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의 전문성으로 이 회사에서 3일 일하고, 저 회사에서 2일 일하는 방식이다. 일자리 시장이 이처럼 비정규직화하고 긱 경제로 변하는 것은 노후의 일자리 시장에 좋은 뉴스이다.



노후에는 조직화된 직장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수직화된 구조에 계속 머물기 힘들기 때문이다. 60세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 회사 직원의 1%도 채 안 될 것이다. 젊은 사람도 어렵다는 작은 취업문을 고령자가 통과하기란 더 어렵다. 그래서 조직화된 직장보다는 1인 기업, 전문화된 영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형태가 적합하다. 설령 정규 직장 취업이 가능하더라도 일주일을 꼬박 근무하기보다는 파트타임이나 2, 3일 정도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수출 전선에서 평생을 일했던 사람이 수출 관련 기사를 쓰는 파트타임 기자가 되기도 하고, 무역회사에 수출 관련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혹은 벤처기업의 파트너가 되어 경영 자문이나 홍보를 맡는 경우도 있다.

이제 노후에 적합한 일자리 형태가 사회 전반의 일자리 추세와 궤를 같이하면서, 전문화된 영역의 일자리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긱 경제와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노후에 편하고 값싼 비용의 비정규직 형태로 자신의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다.

## 미래 '신노년층'의 달라지는 일자리 환경 3

### 수명 증가에 따라 노후에 일하는 기간도 증가

이러한 환경 변화뿐 아니라 건강, 학습 능력 면

에서 현재의 노년과 다른 신노인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현재의 노인에 비해 노후 일을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주변의 모임에 가보면 70대 노인들 중에서도 왕성하게 일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1940년대 생인 70대도 이런데, 그보다 20~30년 이상 늦게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의 70대는 이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동적일 것이다.

## 신노년층의 인생 후반전 일자리 핵심 전략 6가지

논의를 정리해보자. 신노년층은 건강하고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이 맞이할 일자리 환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고령 산업이 급속히 커질 것이다. 일자리 형태도 수직적 조직보다는 파트타임이나 1인 기업 등이 많아지게 된다. 신노년층은 현재의 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과 능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싸움 전장이 달라지고 장수가 교체됐다면 싸움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신노년층이 될 40, 50대 장년층에게는 인생 후반전의 일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첫째 미드필드(50대)를 튼튼히 한다.

축구를 보면 공격수가 골을 넣고 수비가 방어를 하지만 미드필드가 약하면 모두가 허사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매끄럽게 이어지고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50대가 미드필드 역할을 한다. 왜일까? 글의 서두에서 예를 든 것처럼 C 씨는 50대에 미래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70세 넘어서까지 오래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지금의 40, 50대는 80세까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50대는 그 이후의 20년을 일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을 잘 대처하면 자연스럽게 노후까지 좋은 일자리가 이어진다.

노후 일자리로 공을 매끄럽게 배급해주는 셈이다. 50대는 '제2의 고(高)3'이라고 생각하라.

### 둘째 길게 본다.

기구치 다케오라는 일본 사람이 있다. 1924년에 태어나서 중고 구두 매매를 하다 도매상까지 하게 된 그는, 딸에게 맞는 구두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에 55세에 대학교에 입학한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기초를 다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무려 10년 동안 구두 만드는 것을 배운다. 그가 만든 수제 구두가 유명해져서 맞춤형 구두는 300만 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회사의 경영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본인은 90세가 되어서도 흰 가운을 입고 구두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만일 지구치 다케오 씨가 70세에 세상을 떠났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냥 구두에 미쳐서 구두를 배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90이 넘어서도 왕성하게 일을 하다 보니 그의 선택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지금은 지구치 다케오 씨의 행동이 특이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40, 50대가 노년이 됐을 때는 흔히 보는 광경이 될 것이다. 신노년층은 노후의 일을 바라볼 때 지구치 다케오 씨와 같은 긴 시야를 가져야 한다.

**신노년층 일자리 경제학**

달라지는 일자리 환경	신노년층 일자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치즈가 4차 산업혁명과 시니어 비즈니스로 이동한다.</li> <li>일자리 형태가 신노년층에 우호적으로 변한다.</li> <li>건강하게 오래 일하게 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드필드를 틈튼히 한다.</li> <li>길게 본다.</li> <li>배움을 통해 나를 재교육한다.</li> <li>재교육은 산업 변화에 맞는 기술에 초점을 둔다.</li> <li>기존의 일자리 틀을 벗어난다.</li> <li>신노인으로 진화한다.</li> </ul>

**셋째 배운다.**

배우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나에 대한 투자다. 귀촌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우는 것이 귀촌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배워야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 신노년층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시도를 해야 한다. 현실을 보면 55~64세의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이 18% 정도로 숙련 향상의 기회가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나라보다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어느 나라보다 적은 교육비를 투자한다. 이러한 ‘몰빵’ 투자는 장수 사회에서는 옳지 않은 자원 배분이다. 북유럽에서는 노인에 대한 의무교육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는 젊을 때 25~30년, 노후에도 20~25년 정도 일해야 한다. 나에게 투자해서 후반 20년 동안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 ‘수지맞는 장사’다.

**넷째 재교육은 산업 변화에 맞는 기술에 초점을 둔다.**


앞으로는 3D프린팅이나 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요즘 은퇴자 교육에서는 모바일 활용이 인기가 높다고 한다. 은퇴자가 모바일을 배워서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린다. 태양광 설비 설치 기술도 좋다. 당국도 은퇴자를 위한 교육을 다양화하고 수준을 높여야 하며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

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 40대는 초대 줄 이상 비중이 50%이고 고졸이 45%나 된다. 따라서 이런 교육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국도 이 분야 교육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4050도 이를 선점해야 한다.

**다섯째 기존의 일자리 틀을 벗어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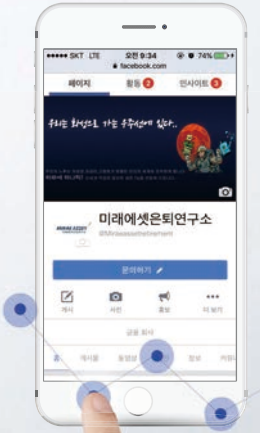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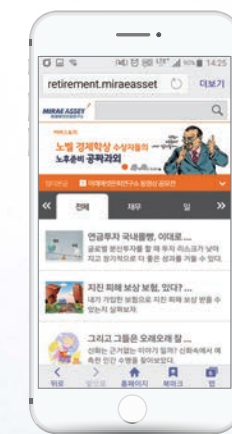
퇴직 후 일자리의 형태는 젊은 세대와는 다르다. 신노년층에 속하는 사람은 조직을 갖춘 기업에 다시 진입하겠다는 생각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직업이 1만1000개로, 미국 3만 개, 일본 1만6000개에 비해 적다. 소규모의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가는 것은 국가의 부가가치도 높이는 일이다. 소자본으로 단순 창업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개념이다. 이런 형태의 직종은 노후에 자신의 몸을 혹사하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젊은 사람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섯째 신노인으로 진화한다.**

장년층은 지금 기대수명 증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취업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다. 50~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64%에서 2015년에는 71%로 증가했다. 지금의 40대가 50대로 편입하는 즈음이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때쯤이면 신노년층인 베이비부머들이 노후 일자리 시장을 장악한다. 4차 산업혁명과 시니어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오래도록 일을 할 것이다.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지식을 갖춘 신노인으로 진화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만 한 노후 복지가 없다. 이를 위해 지금 40, 50대인 베이비부머들은 미드필드를 강화해야 한다. 

# 연금과 투자, 노후 대비 정보 어디가 좋을까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지금 구독하세요! 팟캐스트·페이스북·뉴스레터



**01**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 발전소’**  
‘팟빵/podcast’ 앱 접속 → ‘은퇴’ 검색 → ‘행복한 은퇴 발전소’ 구독

**02**  
**Facebook ‘미래에셋은퇴연구소’**  
‘Facebook’ 웹 / 앱 접속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검색 → 페이지의 ‘좋아요’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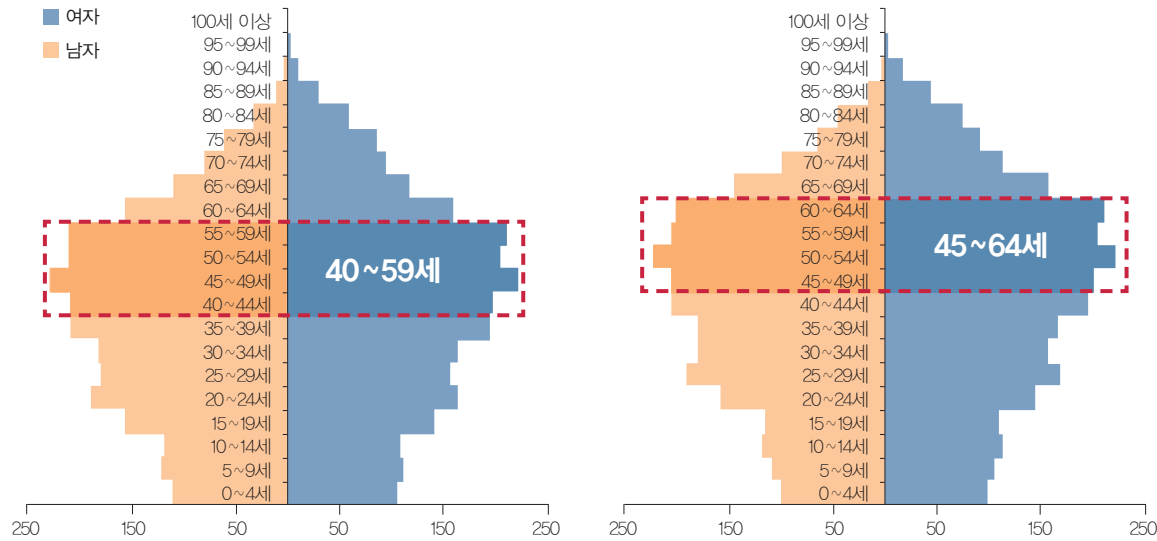
**03**  
**뉴스레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검색 → ‘뉴스레터 신청’ 클릭 → 이메일주소 등록

# 4050세대 신노년으로 진화한다

40,50대 중·장년 세대는 현재 한국의 최대 인구 계층이며, 이러한 위치는 향후 10~15년 뒤에도 변함없이 이어진다.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기술에 대한 적응도 빠르다. 이러한 특징들은 중·장년들이 미래의 신노년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2017년(D)

2022년(D+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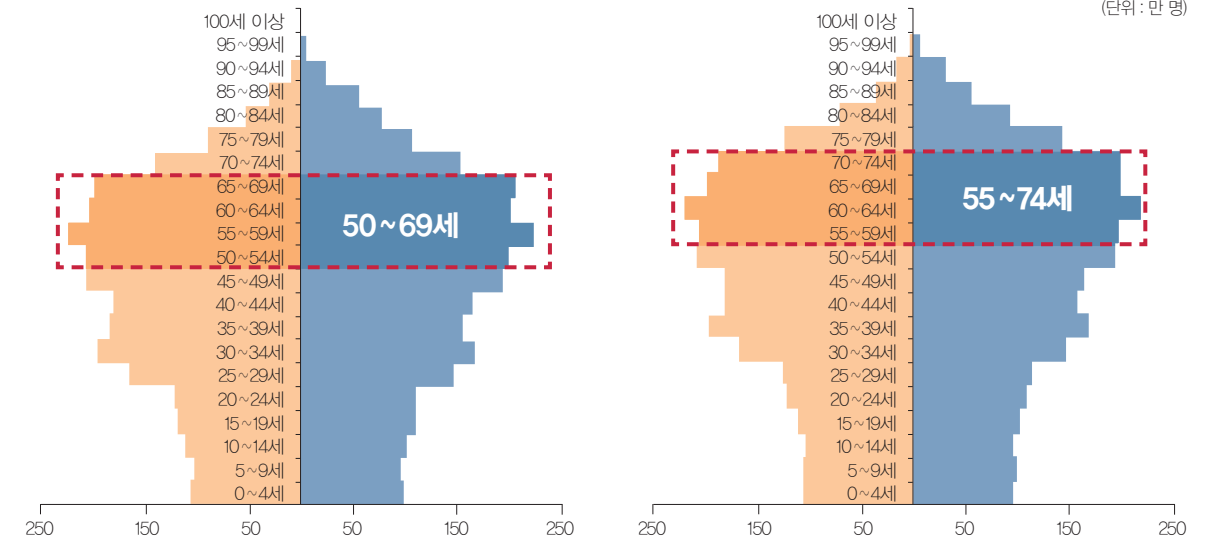
## 1 대한민국 최대 인구 계층 '3명 중 1명은 40,50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2017~2032년)

- 어떤 세대가 미래를 주도하려면 인구 비중도 중요하다.
- 현재 한국의 40, 50대는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인구 계층이다.
- 이들은 15년 뒤인 2032년에도 여전히 28%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대로 남게 된다.

2027년(D+10년)

2032년(D+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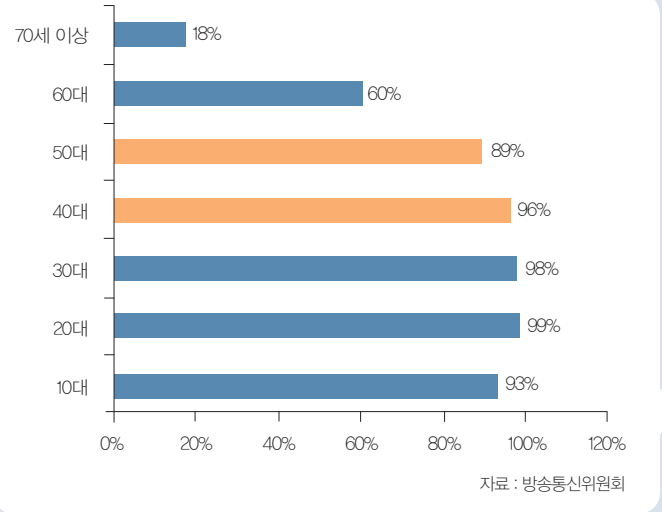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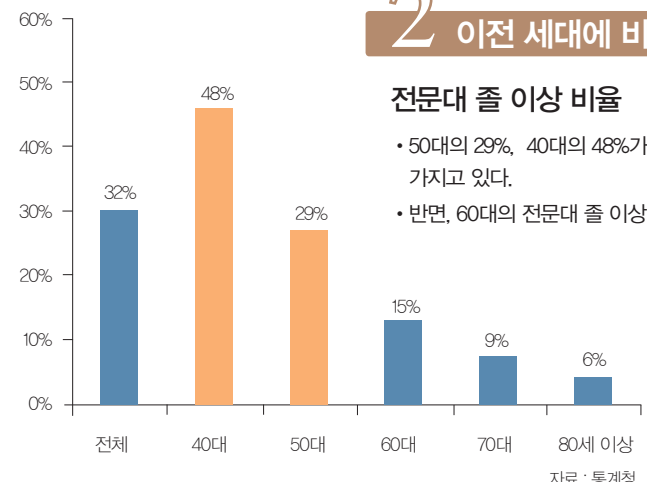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단위 : 만 명)

## 2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학습 능력'

전문대 졸 이상 비율

- 50대의 29%, 40대의 48%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 반면, 60대의 전문대 졸 이상 비율은 15% 정도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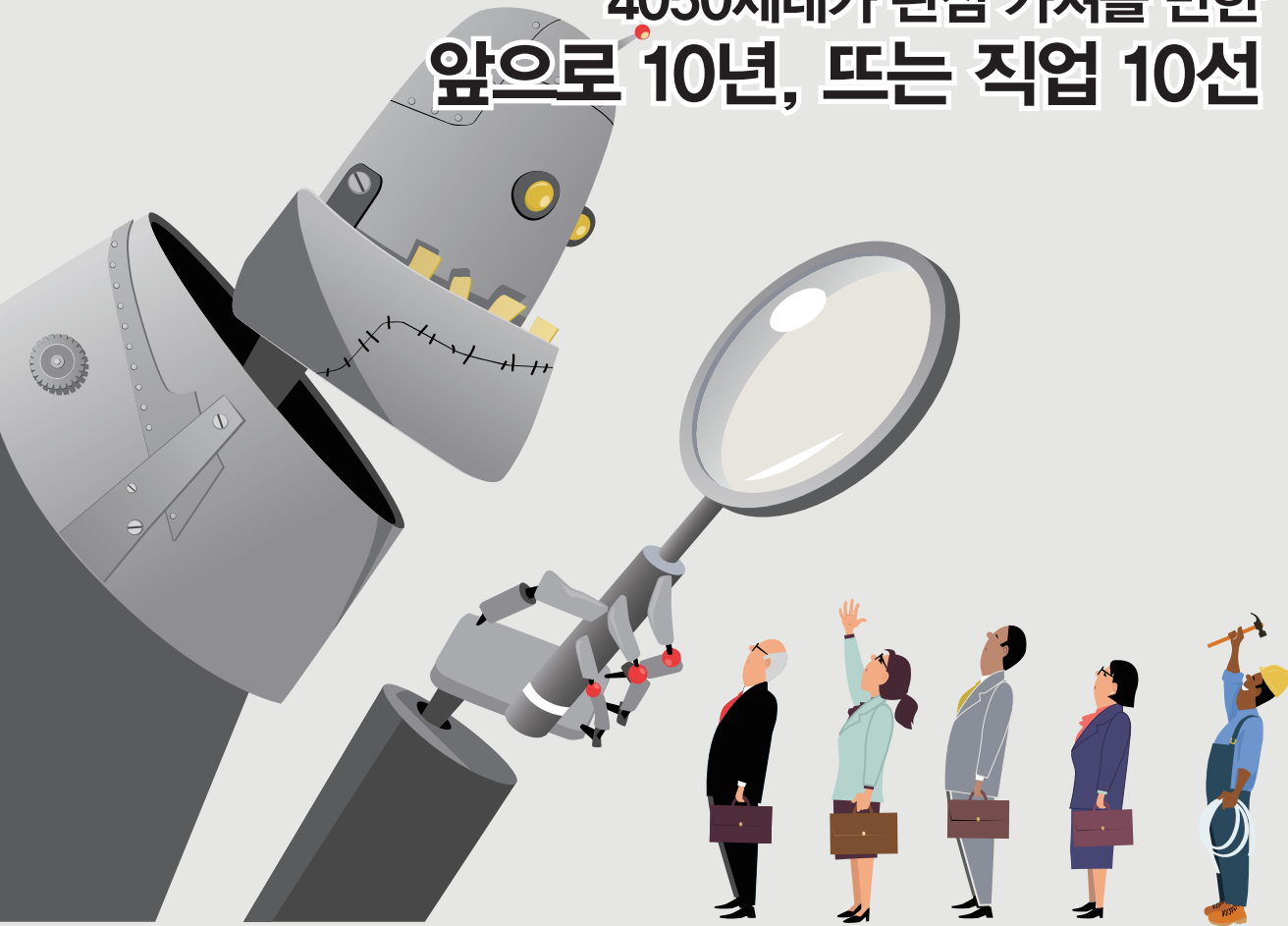
## 3 '신기술'에 대한 빠른 적응력

연령대별 스마트폰 이용 현황

대표적 정보기술(IT) 기기인 스마트폰의 경우 50대의 89%, 40대의 96%가 사용한다. 이는 젊은 세대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60대 이상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것이다.



# 4050세대가 관심 가져볼 만한 앞으로 10년, 뜨는 직업 10선



지금의 40, 50대가 신(新)노년층으로 진화하게 될 향후 10년여 동안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류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어서 정보사회로 변화해왔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지식사회로의 진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프린팅, 로봇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돼 세계의 모든 제품 및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즉 고령화율이 2016년에 13.5%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26년에 21%, 2050년에는 3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이 두 가지 변화는 4050세대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겠지만, 건강과 학습 능력을 갖추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다. 이러한 미래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4050세대가 지금부터 관심 가져볼 만한 새로운 직업을 알아본다.

## Part 1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

1. 드론 조종사
2. 태양광 발전설비 전문가
3. 3D프린팅 운영 전문가
4. 스마트 파머
5. 가상현실(VR) 운영자

## Part 2 고령화 관련 직업

6. 시니어 컨설턴트
7. 제3섹터 전문가
8. 실버여행 전문가
9. 실버 비즈니스 기업가
10. 주택 활용 비즈니스 경영자

## Part 3 기타 직업



## 01 드론 조종사



### 뜨는 이유

드론은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군사 용도로 처음 생겨났지만, 최근에는 고공 촬영과 배달, 농약 살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17년 개인용, 상업용 드론 시장 규모는 60억4935만 달러(약 6조9568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4.3% 증가된 것이다. 가트너는 또한 2020년까지 드론 시장이 112억 달러(약 12조88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보다 드론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구글과 아마존 드론 조종사들의 임금은 시간당 약 45달러(약 5만5000원) 선이며, 연봉 기준으로는 90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이미 농업용 드론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일주일에 몇백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드론 조종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 하는 일

드론은 엄연한 항공기로 다양한 센서가 들어간다. 복잡한 기계인 만큼 드론 조종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드론 조종사들은 드론에 장착된 각종 센서의 역할과 활용 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드론을 조종하는 목적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 효율적으로 농약을 뿌리는 방법을 익혀야 하며, 고공 촬영용 드론의 경우 각종 촬영 기술을 익혀야 한다. 군사용 드론의 경우 촬영은 기본이며, 무기 조작법까지 배워야 한다.

### 되는 방법

개인이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12kg 미만의 드론을 조종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12kg이 넘는 대형 드론을 조종하려면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하는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드론 조종 면허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이며,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필기)과 실기시험(구술·실비행)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과정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매우 유사하다. 직접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시험을 봐도 되지만 전문 교육기관에서 취득할 수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치르는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필기시험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장에서 시행하며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과 운용 등의 내용으로 총 4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50분이고 70%인 28문제 이상을 맞히면 합격할 수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20시간의 비행과정을 이수해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 교육기관은 2017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14곳이 있다. 실기시험은 기체와 조종 지식, 점검 방법을 기본으로 지상활주, 공중조작, 착륙조작, 비행 후 점검 등으로 구성된다.



## 02 태양광 발전설비 전문가



### 뜨는 이유

태양광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발전 단가 인하 때문이다. 현재 기술 발전과 경쟁으로 연 30~50%씩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에 비례해 발전 단가도 빠르게 인하되는 중이다. 유럽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이 이미 석탄 발전 가격 대비 저렴한 상황에 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발전설비를 여러 곳에 설치해야 하므로 사람의 힘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 하는 일

태양광 발전설비 전문가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특정 장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의 기간은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길면 6개월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설치에 앞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현장 답사다. 건축물 위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토지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하고, 설치 장소의 면적과 설치 가능 태양광의 용량(kw)도 판단해야 한다. 현장 답사가 끝나면 현장 배치를 하게 된다. 토목 설계를 하고 현장 배치 팀을 투입해 실제 설비의 현장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구조물 설계, 구조물 배치, 구조물 제작, 품질 테스트의 순으로 진행된다. 토목 설계와 현장 배치가 끝나면 토목공사와 기초공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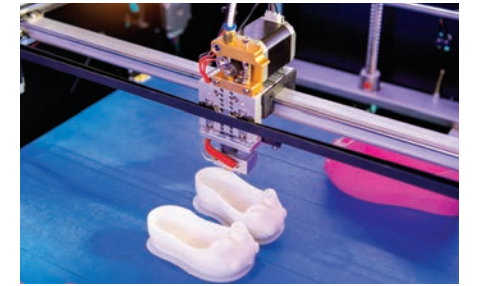
### 되는 방법

태양광에너지생산기술(기사) 자격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첫째는 기술자격 소지자다. 동일(유사) 분야 기사이거나, 태양광에너지생산기술산업기사이면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기능사이면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관련 학과 졸업자다. 대학에서 태양광에너지 생산 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예정자 포함)했거나, 전문대에서 관련 학과 졸업 후 1~2년의 실무 경력을 쌓았거나, 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을 이수했거나,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순수 경력자다. 태양광에너지 생산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된다.

태양광에너지생산기술(기사) 자격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는데, 필기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영,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 과목에서 출제되고, 실기시험은 태양광 발전설비 실무에 대한 내용을 서술형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 03 3D프린팅 운영 전문가



### 뜨는 이유

3D프린터는 글이나 사진 등을 인쇄하듯 자전거, 안경, 그릇, 인공 치아 등을 찍어내는 기계다. 재미있는 것은 이 놀라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발명가 찰스 홀(Charles W. Hull)이 최초의 3D프린팅 기술을 개발한 지 이미 30년이 넘었다. 그렇다면 왜 3D프린팅 기술이 최근 들어 이슈가 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기술의 장점은 해당 기술의 특허가 만료되어 시장 진입이 쉬워진다는 점이다. 즉 가격이 내려가고 시장에서 널리 쓰이게 된다. 3D프린터는 매년 개별 수요에 맞는 색다른 디자인의 제품을 찍어낼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소재도 플라스틱에서 금속까지 다양해졌다. 출력 제품도 장난감, 인공 뼈, 안경 등에서 총, 비행기, 우주항공 부품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3D프린팅 산업 연구기관인 '3D프린팅 연구조합'에 따르면 전 세계 3D프린팅 시장은 2016년 기준 7조 원에 육박하고 시장의 성장률은 연 20%에 달한다. 이렇듯 3D프린팅 시장이 커지면 3D프린팅을 운영하는 전문가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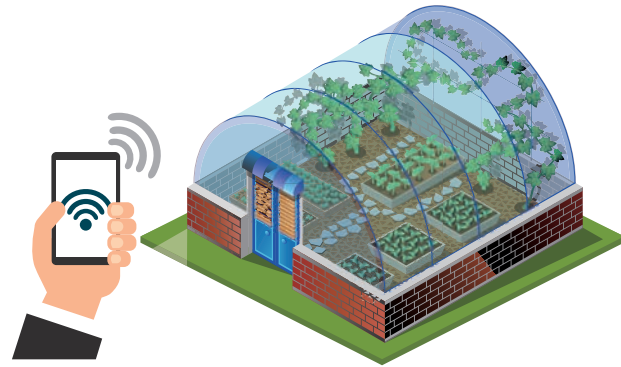
3D프린팅 운영 전문가는 3D프린팅을 활용해 미니어처, 액세서리, 일상용품, 개인 편의제품, 기계 부품 등 다양한 맞춤형 제품의 설계 및 제작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을 설계해서 완성하는 과정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 일하는가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D프린팅 과정은 크게 설계·모델링, 프린팅, 후처리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선행되는 과정은 설계·모델링이다. 이 과정에서 3D프린팅 운영 전문가는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스케치 또는 스캐닝한 후 3D프린터를 위한 3D 도면을 제작해야 한다. 설계 및 모델링이 완료되면 실제 제품을 프린팅해야 한다. 3D프린터는 재료를 넣고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출력이 끝나지 않는다. 재료가 정확한 위치에 프린팅되는지, 고온 작업 시 재료가 녹아 내리지 않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 후처리 작업은 주로 표면처리와 도색, 조립 등으로 이뤄진다. 3D프린터는 한 줄씩 쌓는 적층 방식으로 물건을 출력하므로 표면이 다소 거칠 수 있다. 따라서 표면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도색하고, 조립하면 마무리된다.

### 되는 방법

3D프린팅 운영 전문가가 되는 정식 방법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현재 3D프린팅과 관련된 민간 자격증으로 한국3D프린팅산업협회의 '3D프린팅 조립 전문가', '3D프린팅 마스터', '3D프린팅 전문 교육강사' 등이 있다. 2018년 하반기경 국가기술자격인 '3D프린팅전문운용사'가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3D프린팅과 관련된 무료 또는 소액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04 스마트 파머



**뜨는 이유** 스마트폰으로 농사를 짓는다? 무슨 미래소설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세종시는 2014년 말 창조마을 시범사업장 '스마트팜(지능형 비닐하우스 관리시스템)'을 105개 농가에 설치했다. 이후 2015년에 12개소, 2016년에 23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타 지역으로도 확산 중이다. 스마트 파머(스마트팜 운영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확인하고 제어하며, 농작물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마법 같은 일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발달 덕분에 가능하다. 효율도 좋다. 농촌진흥청이 소개한 한 스마트 파머는 토마토 농장에 스마트팜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생산량이 38.2% 증가한 반면, 근무일수는 20% 줄었다고 밝혔다.

**하는 일**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시설의 온도, 습도, 햇볕량,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어장치를 구동해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스마트 파머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를 하며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되는 방법** 아직까지는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국한돼 있다. 따라서 거주지 이전 등이 전제돼야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확산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오작동 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초기 육성 중인 사업이므로 아직 노하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 스마트 파머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스마트 온실환경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마이스터대학, 도 농업기술원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스마트팜 교육에 참여하고, 스마트팜 체험장 등에서 미리 스마트팜을 경험해볼 필요도 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스마트팜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지자체의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구하거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지자체의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해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아직 스마트팜 산업이 초기임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상당 부분의 시설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다. 자금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여러 사람이 협동조합 형태로 시작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 05 가상현실(VR) 운영자



**뜨는 이유** '전용 기기를 착용하고 시스템에 접속하면 가상의 세계에서 깨어나 모험을 즐긴다.' 게임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서울 시내에 성업 중인 가상현실(VR) 카페에 가면 이러한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다. 젊은 층에게는 이미 '핫'한 데이트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어마어마한 가격도 아니다. 1만 원을 내고 음료를 주문하면 70분간 다양한 VR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바야흐로 VR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시장 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글로벌 VR 시장 규모는 2016년 67억 달러(약 7조7500억 원)에서 2020년 700억 달러(약 81조530억 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폭발적인 성장세다. 이에 따라 인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가상현실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연평균 32%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는 일** VR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앞에서 예를 든 VR 게임 카페 운영이 대표적인 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분야가 생길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여행사에 소속된 VR 운영자라고 해보자. 고객들은 해당 여행사가 소개하는 여행지나 리조트가 실제로 어떨지 궁금해할 것이다.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지만 고객들은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한다. 그러나 VR로 해당 여행지나 리조트를 체험하게 해주면 어떨까. 고객들의 신뢰도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일을 VR 운영자가 할 수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업계에 소속된 VR 운영자는 새로 분양할 아파트의 미래 모습을 고객이 직접 체험하게 해줄 수 있고, 의과대학 소속의 VR 운영자는 의사 후보생들이 VR 시스템을 이용한 수술을 통해 자신의 의료기술을 높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 근무하는 VR 운영자는 고객들이 해당 상품을 가상현실상에서 써보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교육팀의 VR 운영자는 전국에 있는 직원들을 VR 시스템으로 한 강의장에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도 있다.

**되는 방법** VR 시스템이나 콘텐츠 개발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개발된 VR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VR 운영자가 가져야 할 특별한 자격도 없다. 그러나 VR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각종 콘텐츠의 운영 능력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본인이 스스로 V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현재는 VR 콘텐츠 즉, VR를 이용한 영화, 게임 등은 주로 전문가만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각종 VR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 06 시니어 컨설턴트



### 뜨는 이유

컨설턴트란 개인이나 기업에 자신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조언을 해주는 직업을 말한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무엇이고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하는 일은 다 다르다. 지금까지는 주로 젊은 사람의 영역으로 여겨져왔던 이 컨설턴트가 앞으로는 시니어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시니어 컨설턴트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중·장년층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경영이나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다. 또한 이미 이직, 전직 등의 커리어 관련 이벤트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대한 노하우와 개인적인 지혜가 많다. 이러한 바탕 위에 약간의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시니어 컨설턴트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하는 일

시니어 컨설턴트가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의 '전직 지원'을 도와주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제2의 직업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됐다. 새 직업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특기와 흥미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찾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시니어 컨설턴트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전직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시니어 컨설턴트는 비슷한 직종의 새로운 직장으로 일자리를 옮기거나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사람의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이때 상담을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취업 알선과 달리 퇴사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궁극적으로는 전직 희망자가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경력 목표와 방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경영 자문' 영역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전문 분야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중소기업들의 자문에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역할이다. 대기업들과는 달리 국내외 중소기업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영·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 회사 경영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시니어 컨설턴트는 이러한 기업들에 조언이나 지도를 해줄 수 있다.

### 되는 방법

시니어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정해진 전공이나 자격증은 없으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직업상담사(국가 자격증)를 비롯해 퇴직관리사, 퇴직컨설팅전문가, 커리어컨설턴트, 진로직업지도사 등 다양한 민간 자격증이 있다. 그러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개인의 전문적인 능력과 실전 경험을 높이기 위해 구직(전직)자를 대상으로 직업 상담이나 취업 컨설팅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대상 시니어 컨설턴트가 되려면 해당 영역에 대해 자신만의 확실한 노하우와 남들이 인정할 만한 경력을 쌓아둬야 한다.



## 07 제3섹터 전문가



### 뜨는 이유

제3섹터란 제1섹터인 공공 부문과 제2섹터인 민간 부문의 공통 영역을 지칭한다. 즉 제3섹터라는 말은 정부도 기업도 아닌 제3의 부문을 의미하며, 요즘은 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집단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비정부기구(NGO), 비영리 조직(NPO), 시민단체 등이 주요한 제3섹터 조직들이며, 최근에는 사회적 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포함되고 있다. 한국에서 제3섹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수는 과거 10년 동안 30배 이상, 고용 규모는 15배 이상 증가했다. NPO 등 기타 제3섹터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제3섹터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굳건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한국의 사회 상황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이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는 고용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늘지 않고, 복지 혜택 대상이 되는 빈곤층은 증가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가 고용을 늘리고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 하는 일

중·장년층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3섹터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NPO 등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다르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사업 목적이 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NPO'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공공(Semi-public) 및 민간조직을 가리킨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조직은 하는 일이나 목적은 비슷하다. 다만 조직의 형태와 관련 법령 면에서 차이가 있다.

### 되는 방법

평소 사회 공헌과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았다면 제3섹터의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3섹터 조직을 만들거나 거기서 근무하기 위한 자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곳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편이 좋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 2급이 있는데 2급은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학점은행제에서 규정된 과목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08 실버여행 전문가



### 뜨는 이유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유럽 등에서는 시니어 세대의 여행이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15년 프랑스 연령별 인구비율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24.5%이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상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50세 이상의 휴가 비용은 일반 프랑스인의 평균보다 30% 정도 더 높은 주당 780유로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50% 이상이 3성급 이상의 호텔을 이용하고, 1년에 5일 이상을 호텔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 패키지 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이러한 추세를 어느 정도 따라가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 세대의 특수한 여행 패턴을 파악하고 관련 여행 상품을 기획·개발·마케팅하는 실버여행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하는 일

실버여행 전문가는 일견 일반적인 여행 전문가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 상품은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 일본과 유럽의 실버여행 상품 사례를 참고해보도록 하자. 프랑스의 시니어 전문 인터넷 여행사인 바캉스 블루즈(Vacances Bleues)에서 크게 히트를 친 상품이 '3세대 여행 패키지'다. 시니어와 자녀, 그리고 손자·손녀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콘셉트다. 여행 상품 안에는 댄싱, 하이킹, 보컬 코칭, 웰니스 등의 테마 상품이 포함돼 있는데, 고객 90% 이상이 추천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일본에는 좀 더 다양한 실버여행 상품이 있다.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는 2014년부터 '배리어 프리 투어리즘(Barrier Free Tourism)'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배리어 프리'란 '턱이나 장벽을 없애다'라는 뜻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운동이다. 이 여행 상품들의 특징은 트래블 헬퍼(Travel Helper, 여행 도우미)라는 특수직업의 보조자들이 여행에 동반한다는 것이다. 트래블 헬퍼는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이나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들과 장거리 여행을 함께 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는데, 일본에는 약 500여 명의 트래블 헬퍼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도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각광받는 또 하나의 실버여행 상품은 '1인 한정' 상품이다. 이 패키지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은 혼자서만 참여할 수 있다. 나홀로여행족들이 단체로 여행을 가는 개념이다. 혼자서 주는 자유로움과 단체여행이 주는 편리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인기가 좋다.

### 되는 방법

실버여행 전문가가 되기 위한 특별한 학력이나 자격증은 없다. 다만 여행할 지역에 대한 교통이나 지리, 숙박, 문화 등 모든 정보를 숙지해야 하므로 일정 이상의 여행 업무 경력이 필요하며, 고령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대학에서 관광경영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이 유리하며, 국가 자격인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09 실버 비즈니스 기업가



### 뜨는 이유

한국은 본격적인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노동자와 소비자가 모두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라고 한다. 시니어 시프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고령자와 관련된 실버 비즈니스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에 금융업을 제외하고 약 27조 원 정도였던 실버 비즈니스 시장은 매년 약 13%의 성장률을 보여 2020년에는 약 7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가까운 인구 대국 중국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 중국산업발전연구망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6년에 16.6%였다. 숫자로는 2억2900만 명을 넘는다. 2020년에는 노령인구가 2억4800만 명, 2050년에는 4억8000만 명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동반 고령화는 한국에서 실버 비즈니스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가까운 수출 대상국인 중국 시장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하는 일

실버 비즈니스 창업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2014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령 친화사업 소비자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가 1순위로 필요로 하는 제품은 식품(34.8%)이었으며, 그다음은 의약품(24.1%), 의료기기(10.0%), 일상생활 보조용품(7.3%) 등의 순서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자. 일본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븐밀'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고객은 편의점 이용이 어려운 시니어들. 500엔 이상 주문하면 도시락이나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세븐밀 서비스는 2014년 기준으로 매출액 3조7800억 엔(약 30조7838억 원)을 달성했다. 독일에서는 음식물을 잘 삼키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3D프린터가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푸드젯 3D'라는 3D프린터에 필수 영양소가 함유된 합성 음식물을 주입해 인쇄하면 누워서도 삼킬 수 있는 실제 음식물이 만들어져 나온다. 또 계단을 오르기 힘든 고령자를 위한 계단승강기, 치매 환자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GPS 시스템을 장착한 운동화도 판매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실버 제품도 있다. 미국의 Lively라는 제품은 자체적으로 무선통신 장비를 내장하고 있는데, 혼자 사는 시니어의 자동차 키, 약 상자 등에 부착된 센서가 해당 제품에 시니어의 모니터링 정보를 전송하면 해당 정보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되는 방법

한국의 대학에도 실버 비즈니스 관련 학과가 있고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사이버대학교에도 관련 학과가 개설 중이다. 시니어비즈니스학과, 실버문화경영학과, 실버산업학과 등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교과목을 가르친다. 각종 실버산업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10 주택 활용 비즈니스 경영자



**뜨는 이유** 새로 뜨는 주택 활용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심형 민박'이다.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빈방을 잠시 빌려주는 형태로, 본인이 직접 운영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과 문화 교류를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정년 없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이 매력적이다. 한국을 찾는 실속형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

또 하나의 주택 활용 비즈니스 사례는 '세어하우스'이다. 세어하우스란 다수가 한집에서 살면서 침실 등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 화장실, 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감 감소, 주거비 절약 등의 목적으로 세어하우스를 찾는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 전망이 좋은 편이다. 세어하우스 플랫폼 컴앤스테이에 따르면 세어하우스는 지난 2013년 총 114개에서 지난해 총 974개로 3년 만에 약 750%나 증가했다. 세어하우스는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등을 개조해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대형 아파트나 여부의 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중·장년층이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하는 일** 도심형 민박은 홍보가 문제다. 대부분 숙소를 검색하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이 숙소를 정하므로 이러한 사이트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사실 가장 큰 홍보 요인은 기존 사용고객들의 후기이므로 찾아오는 손님들의 관리가 중요하다.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요리 체험을 제공한다거나 주변 관광지를 안내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 차별점을 만들면 도움이 된다. 세어하우스의 경우 일반적인 부분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 등 다른 임대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거실 등을 공유하므로 서로 잘 맞는 임대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콘셉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 취미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거나, 직업이나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는 식이다.

**되는 방법** 도심형 민박사업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건물 연면적이 230㎡(약 70평) 미만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도심형 민박 활성화를 위해 신규 창업자에게 7개 외국어 동시통역 서비스와 간판 제작비 일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박업,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등을 포함한 대체숙박 운영자에게 창업 요령, 투숙객 응대 요령 등 대체숙박 운영교육을 실시하는 컨설팅과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세어하우스는 특별한 요건은 없다. 단 주의할 점은 아직까지 국내 건축법은 세어하우스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고시원으로 분류돼 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세어하우스 운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고령화 관련 4050세대가 관심 가져볼 만한 직업들이 많다.

## 기타 4차 산업혁명, 고령화 관련 직업들

직업	하는 일
사물인터넷(IoT)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이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초(超)연결사회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li> <li>사물인터넷 전문가는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사물끼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 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li> </ul>
IT 정보보안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보안 IT 전문가란 조직의 정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해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직업을 말한다.</li> <li>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확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확대 등 초연결사회의 이행으로 컴퓨터 보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li> </ul>
빅데이터 분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메일, 동영상,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산재돼 있는 수많은 데이터, 이른바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람들의 행동 패턴 또는 시장의 경제 상황 등을 예측, 판단하는 사람이다.</li> <li>최근 기업체에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li> </ul>
생명공학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 즉 생명공학 분야다.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나왔거나 해당 분야 경력이 있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보는 것도 좋다.</li> <li>주로 유전자 조작,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바이오 특성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li> </ul>
요양시설 관련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화가 심화되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찾는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li> <li>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해당되며, 자금 여력이 있다면 직접 요양시설 운영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li> </ul>
노인 심리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화가 되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노인 심리상담 전문가는 시니어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 병리적 행동을 예방하도록 돕거나 부적응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li> <li>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 가족 문제, 성격 문제 등 다양한 상담을 요청하는 시니어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한다.</li> </ul>
고령자 전용주택 사업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자녀와의 별거,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가족의 고령자 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고령자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령자 전용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li> <li>이러한 주거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고령자 전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건축 관련 종사자라면 고려해볼 만하다.</li> </ul>
주택임대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직업의 수요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주택임대관리사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li> <li>퇴직 후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 분야로 진출하려는 사람이라면 관심 가져볼 만하다.</li> </ul>





# 新지식·기술, 어디서 배우나?

미래의 새로운 직업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 될 것이다.  
 지금의 4050세대가 신노년으로 진화하고 그 시대에 걸맞은  
 신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어디서 배워야 할까?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에 더욱 가치를 빛낼 지식·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냈다.

www.kopo.ac.kr

##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내 대표적인 직업교육대학으로, 기술 중심의 실무 전문인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특수대학이다. 나이와 학력에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학비 걱정 없이 자신에게 맞는 교과과정과 학습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전국에 33개 캠퍼스와 2개의 교육원이 있다. 이 중 분당의 융합기술교육원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ICT, BT, 응용SW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하이테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서캠퍼스에서는 IT 정보보안 전문가를 육성하는 하이테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을 공부하면서 해킹보안전문가 3급, 정보보안산업기사, 개인정보관리사 등 다양한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9번길 5(서현동 272-6) ☎ 031-696-8800  
 강서캠퍼스 ·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10길 11(우장산동 산60-1) ☎ 02-2186-5819

PLACE  
01

## 국토교통부 선정 드론 교육기관(14개)

국토교통부는 드론 조종사 양성을 위해 시설, 인력, 기체 등의 요건을 갖춘 전문 교육기관 14곳을 지정했다. 이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드론 조종사 자격 학과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선정 기관은 다음과 같다(2017년 5월 기준).

무성항공, 성우엔지니어링, 카스컴, 한국항공대학교,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 일렉버드UAV, 무인기술, 에어콤, 신라대, 대한상의, 모형항공협회, 육군정보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새만금항공

PLACE  
02

## 스마트팜 정보 공유 시스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관련 홈페이지이다. 스마트팜과 관련된 우수 사례, 현장 지원 정책, 자금 지원 정책, 스마트팜 사업 참여 기업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각종 스마트팜 현장 체험 참가 신청, 스마트팜 관련 교육 참가 신청 등도 이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93 ☎ 1522-2911

PLACE  
03

www.smartfarmkorea.net

## 3D프린팅산업협회

국내 3D프린팅 시장의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대학교, 산업단지공단 등과 연계해 신기술, 신소재 개발 등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3D프린팅 관련 전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3D프린팅 조립 전문가, 3D프린팅 마스터, 3D프린팅 전문 교육강사의 3개 민간자격증을 주관하며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3D프린터 제조혁신센터 205호 ☎ 054-461-3030

www.3dpia.org

PLACE  
0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사회적 기업이 육성사업,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재정 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네트워크 형성 등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 이윤의 사용처 등을 심사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시행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 8층 ☎ 031-697-7700

PLACE  
05

www.socialenterprise.or.kr

## 월드프렌즈 코리아

각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던 해외봉사단을 통합해 설립한 한국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이다. 월드프렌즈KOICA자문단, 월드프렌즈NIPA자문단과 같이 전문성을 지닌 퇴직(예정)자를 개도국에 파견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전·현직 봉사단원과 경력 10년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이 현장 정보, 해외봉사 관련 정보가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준다. 퇴직 후 해외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현지 기업, 기관 등에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월드프렌즈코리아 사업본부 ☎ 1588-0434

PLACE  
06

www.k-startup.go.kr

##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 관련 홈페이지다. 정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자금, R&D,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창업 성공 사례나 온라인 창업 강좌 등도 진행한다.

PLACE  
07

## 사이버대학교(21개)

사이버대학이란 정보통신기술(ICT),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과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형성된 가상 공간(Cyber Space)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다. 사이버대학에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총장 명의의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별도로 학교를 다닐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이거나 사이버대학교를 통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디자인, 전자정보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실버비즈니스, 정보보호 등 다양한 전공을 배울 수 있다. 전국의 사이버대학교는 다음과 같다.

건양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세종사이버대학교, 송신사이버대학교, 영남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PLACE  
08



# 시장은 예측할 수 없어도 수익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뒤, 1년 뒤 시장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투자전문가는 금리+α의 수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변동성을 관리하는 펀드로 자산을 키우십시오.

**미래에셋 스마트롱숏70펀드**

**20.27%** 3년 수익률  
BM 9.37% 3년 수익률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채권펀드**

**13.93%** 3년 수익률  
BM 13.70% 3년 수익률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펀드**

**27.98%** 3년 수익률  
BM 10.60% 3년 수익률

**미래에셋 배당과인컴펀드**

**20.22%** 3년 수익률  
BM 11.99% 3년 수익률

※자 펀드 기준



## 전 국민 IRP 시대 개막!

소득 있는 사람은 누구나 IRP 가입 가능

이제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전에는 근로자, 그중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IRP에 가입해 연말정산 때 저축금액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처럼 애당초 퇴직금과 관련 없는 사람은 IRP에 가입할 수 없었다. 물론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가 4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나마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300만 원으로 줄어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7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들 역시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길이 열렸다. 이번 호에서는 전 국민 IRP 시대를 맞아 누가 어떤 혜택을 얼마나 보는지 살펴보고, 또 가입부터 연금 수령까지 IRP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 1 전 국민 IRP 시대 활짝 열린다
- 2 가입부터 연금 수령까지, Q&A로 알아보는 IRP 집중 탐구

## 연금저축도 퇴직연금도, 미래에셋 안정적 수익 추구형 펀드

펀드명	1년	3년	설정이후
<b>미래에셋 스마트롱숏70</b> 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 수익률(세전기준)	1.50%	20.27%	20.09%
스마트롱숏70 종류A	0.34%	16.22%	16.00%
BM	3.93%	9.37%	9.08%
<b>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b> 증권투자자산신탁(채권) 수익률(세전기준)	4.04%	13.93%	71.00%
글로벌다이나믹 종류A	3.36%	11.70%	62.33%
BM	1.52%	13.70%	61.08%
<b>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b> 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혼합) 수익률(세전기준)	9.48%	27.98%	64.91%
배당프리미엄 종류A	8.44%	24.38%	57.09%
BM	11.37%	10.60%	9.60%
<b>미래에셋 배당과인컴</b> 증권투자자산신탁(채권혼합) 수익률(세전기준)	6.63%	20.22%	35.84%
배당과인컴 종류A	5.53%	16.51%	30.01%
BM	6.42%	11.99%	15.32%

다양한 안정적 수익 추구형 펀드 / 미래에셋 글로벌인컴펀드 / 미래에셋 밸런스롱숏펀드 / 미래에셋 다양한자산기회포착펀드

출처: 제로인 ■ 기준일: 2017.04.28 ■ 과거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과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클래스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운용: 약 연0.40%)등 추가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영업자, 공무원도 IRP 가입 가능... 연말정산 때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전 국민 IRP 시대 활짝 열려

글 김동업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 # 황봉구(40) 씨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

올해 초 직장인 황봉구(40) 씨는 연말정산 성적표를 받아 들고 화가 났다. 세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더 내야 했기 때문이다. 수소문 끝에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금융기관을 방문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IRP에 가입하려면 퇴직연금 가입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아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김 씨는 IRP에 가입할 수 없었다.

### # 김양수(42) 씨

#### 중학교 선생님(공무원)

중학교 선생님인 김양수(42) 씨는 노후 준비 때문에 고민이다. 남들은 “공무원연금도 받겠다. 뭐가 걱정이냐”고 하지만,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난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노후연금을 좀 더 받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할까?

### # 최성환(45) 씨

#### 음식점 운영(자영업자)

최성환(45) 씨는 5년 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식당을 개업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사업이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다. 연 소득이 1억 원이 넘어서면서 이전 소득세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3년 전부터는 절세와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년 400만 원씩 저축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고소득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걱정이다. 세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IRP 가입 가능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7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축 금액만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입 대상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들만 가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황봉구 씨처럼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

2017년 7월 25일 이전	2017년 7월 26일 이후 추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 가입자 중 희망하는 자</li> <li>•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근로자</li> <li>• 퇴직급여 제도 미적용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li> <li>-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자</li> </ul> </li> <li>• 지역연금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li> </ul> </li> <li>• 자영업자</li> </ul>

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최성환 씨와 같은 자영업자, 김양수 씨와 같은 공무원은 IRP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7월 26일부터는 모든 근로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황봉구 씨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 안 되거나 해당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채 1년이 안 돼 퇴직금 수령 대상이 아닌 근로자들도 이제 IRP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양수 씨와 같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 직원들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최성환 씨처럼 퇴직급여와는 상관없던 자영업자도 IRP 계좌를 개설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 고소득자도 연간 7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IRP에 가입하지 않고 연금저축에만 가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는 있다. IRP와 달리 연금저축은 별도로 가입 대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든 공무원이든 자영업자든 할 것 없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에 차이가 난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돈을 합산해 연간 최

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때 IRP 적립금 700만 원을 전부 공제해주지만, 연금저축에 맡긴 돈은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다. 연간 700만 원을 공제받으려면 최소 300만 원은 IRP에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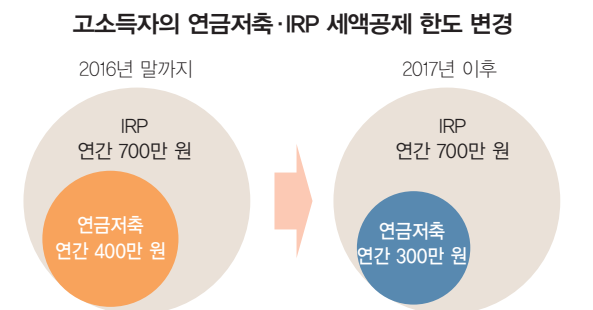
그런데 위 세 사람처럼 여태껏 IRP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은 기껏해야 연금저축에 가입해 400만 원을 공제받는 게 전부였다. 게다가 고소득자는 올해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으로 축소되기까지 했다. 고소득자라고 하면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거나 사업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이 해당된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것은 연금저축뿐이다. IRP를 활용하면 여전히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저축금액은 조정해두는 것이 좋다. 최대 300만 원까지만 연금저축에 적립하고 나머지는 IRP에 저축해야 한다.

#### 연말정산 때 40만~50만 원 더 돌려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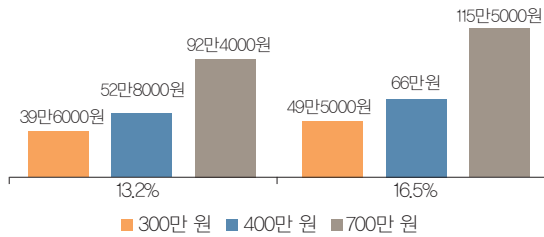
IRP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환급금은 저축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





IRP 세액공제 금액과 연말정산 환급 세액



해 계산한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 소득이 40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는 저축금액의 16.5%를 환급받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13.2%를 돌려받는다.

앞서 황봉구 씨와 김양수 씨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년 400만 원씩 저축했다면, 연말정산 때 52만 8000원(13.2%)이나 66만 원(16.5%)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이제 IRP에 가입해 300만 원을 더 저축하면 매년 40만~50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최성환 씨도 IRP에 가입하면 연금저축에만 가입했을 때보다 세액공제를 400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성환 씨는 연말정산 때 52만 8000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

### ‘연금저축·IRP’ 공제 한도 꾸준히 확대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공제 한도는 꾸준히 확대돼오고 있다. 2001년 처음 연금저축 제도가 도입됐을 때만 해도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 저축금액 중 24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300만 원, 2011년부터는 4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2013년에는 IRP가 공제 대상에 포함돼 연금저축과 IRP 저축 금액을 합산해 연말정산 때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2014년부터는 공제 방식이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공제 한도는 4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2015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다시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는 40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함에 따라 추가로 늘어난 한도 300만 원은 IRP에 적립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고소득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연금저축·IRP’ 소득·세액공제 한도 어떻게 변해왔나

기간	공제 방법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연금저축	IRP
2001	소득공제	-	240만 원	-
2002				
2003				
2004				
2005			300만 원	
2006				
2007				
2008			400만 원	
2009				
2010				
2011				
2012	합산 400만 원			
2013				
2014		13.2%		
2015			합산 7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2016				
2017	합산 700만 원 (연금저축 : 저소득 400만 원, 고소득 300만 원 <sup>1)</sup> )			
2017			세액공제	
		고소득 <sup>1)</sup> 13.2%		저소득 16.5%

1)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  
2)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 IRP 이것이 궁금해요

전 국민 IRP 시대가 열리면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 IRP에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IRP는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는지, 가입 후 운용은 어떻게 하고, 연금 수령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IRP 가입부터 연금 수령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 Q1

###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나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가입할 수는 없고,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금융기관에서는 계좌를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검토한 다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전에는 IRP에 가입하려면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지금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고, 직장인들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밖에 아래(표)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참하면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지참 서류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등록증</li> <li>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li> <li>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li> <li>소득금액 증명원</li> <li>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li> </ul> <p>→ 이 중 1개 제출</p>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li> </ul> <p>→ 이 중 1개 제출</p>

## Q2

### Q3

#### 얼마나 저축할 수 있나요?

전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산해 연간 1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이 중 700만 원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IRP에 가입하는 분들도 오는 12월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저축한 금액을 금년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요?

IRP에 저축한 돈은 예금과 보험부터 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상품을 골라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재 IRP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 배당 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증권사의 원리금 보장 ELB, 은행의 정기예금, 보험사의 금리형보험상품이 있습니다.

실적 배당 상품으로는 펀드와 실적 배당형 보험이 있습니다.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하면 시중금리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IRP 적립금을 운용할 때 제한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전환사채 등의 고위험 상품에는 투자가 금지돼 있으며, 주식형 펀드의 비중도 전체 적립금 중 70% 이하로 운용해야 합니다.

IRP 가입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실적 배당 상품 중 하나를 골라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상품을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형 펀드와 주식 편입 비중이 60% 미만인 혼합형 펀드는 전체 자산의 7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Q4



구분		내용	
실적 배당	채권형	국내 및 해외 우량 채권에 분산 투자(주식 미편입)	
	혼합형	주식 비중이 주로 60% 미만인 펀드	
	주식형	주식 비중이 최소 60% 이상인 펀드	
원리금 보장	은행	정기예금	
	보험	이율보증형 보험(GIC)	예금처럼 만기와 수익률이 확정된 보험
		금리연동형 보험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 변동(최저보증이율)
	증권	원리금 보장 ELB	원리금이 보장되는 파생결합증권

### Q5

#### 노후자금인데 펀드에 투자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투자 대상과 시기를 분산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여 투자 대상을 분산합니다. 구체적으로 2개 이상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면 개별 상품이 지닌 위험을 다른 상품으로 분산해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자산과 글로벌 시장으로 분산하면 수익성은 높이고 위험은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시기를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투자 시기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투자기간이 길어지면 변동성도 줄어듭니다. IRP는 하나의 계좌 내에서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많다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해볼 만합니다.

### Q6

####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취업자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이 넘는 자영업자는 저축금액의 13.2%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 연간 7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92만4000원(=700만 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소득이 적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저축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즉 IRP에 7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115만5000원(=700만 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 연간 700만 원을 저축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액

소득	세액공제율	700만 원 저축 시 환급금
•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이하	16.5%	115만5000원
•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초과	13.2%	92만4000원

## 세액공제 받지 못한 돈도 나중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과거에 저축했던 적립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을 올해 저축한 것처럼 변경할 수 있습니다.

IRP의 연간 저축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 해에 700만 원을 넘게 저축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돈은 그다음 해에 저축한 것으로 납입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다음 해 소득을 신고할 때 700만 원을 초과한 저축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 사장 홍길동 씨는 사업이 잘되어 2017년에 1200만 원을 IRP에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700만 원의 IRP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습니. 그러나 2018년에는 사업이 부진해 IRP에 저축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 사장은 2017년에 저축한 IRP 계좌 적립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500만 원을 2018년에 저축한 것처럼 변경할 수 있고, 201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500만 원의 IRP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Q8

## 상품은 어떻게 변경하나요?

근로자들은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을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품을 변경하려면 본인의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는 금융기관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변경하는 방법에는 크게 '배분 비율을 변경하는 방법'과 '교체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배분 비율 변경이란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들 간의 투자 비중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교체 매매는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을 전부 혹은 일부 해지한 후 새로운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상품을 변경하다 보면 '부담금'과 '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부담금이란 앞으로 IRP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고, 적립금이란 이미 납입한 돈과 이를 운용해 얻은 성과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담금은 새로 납입하는 돈, 적립금은 이미 쌓여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운용 상품을 선정하고 그 비율을 결정할 때 부담금과 적립금을 따로 구분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배분 비율 변경과 교체 매매를 부담금과 적립금에 각각 따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쌓인 적립금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 연금 개시 이전에 적립금을 중도에 찾아 쓸 수도 있나요?

IRP는 저축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대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을 할 수는 있지만 인출 금액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 IRP 중도 인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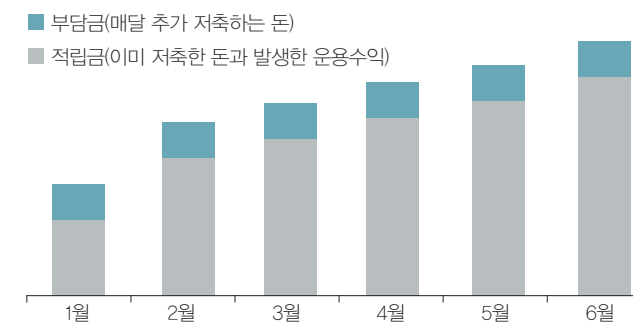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IRP 개설 금융기관의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 파산 선고
- 무주택자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 파산, 회생
- 천재지변

Q9

납부할 부담금만 변경하고 싶다면 '부담금 투입 비율'만 변경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품을 변경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 만기 전에 상품을 해지하면 가입 시 약정했던 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립금의 만기를 정확히 확인한 후 상품을 변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투자하던 실적 배당 상품을 변경할 때는 환매주기와 수수료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투자하던 실적 배당 상품을 환매하려면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8일까지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존 상품을 환매한 후 신규 상품에 투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몇몇 실적 배당 상품은 환매할 때 수수료가 있으므로 환매 시 운용상품의 수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금과 적립금 개념





##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연금(연금 수령일 현재)	연금소득 세율	종신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저축 기간이 5년 이상 되고 가입자 연령이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단기간에 찾아 쓰지 못하도록 연금 수령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연

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아 쓰는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세율(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개시를 신청한 때의 적립금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첫째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 원(=1억÷10)×120%이 됩니다. 따라서 IRP 가입자가 첫째 1300만 원을 찾아 썼다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를 납부하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됩니다.

$$\text{연금 수령 한도} = \frac{\text{과세기간 개시일(연금 개시 신청일) 현재 평가액}}{(\text{11-연금 수령 연차})} \times 120\%$$

### ‘연금 외 수령’을 하면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

원천	연금 외 수령	연금 한도 내 수령
① 세액공제 못 받은 추가적립금	과세 제외	과세 제외
② 세액공제 받은 추가적립금	기타소득세(세율 16.5%) 분리과세	연금소득세(세율 3.3%~5.5%) 분리과세
①, 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Q 10

## 공무원, 군인, 선생님들은 공적연금을 많이 받는데, IRP에 저축해 세액공제 받는 금액보다 연금 수령할 때 내는 세금이 더 많지 않을까요?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은 직장인들에 비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많습니다. 연금소득이 많은 만큼 당연히 연금소득세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RP에 가입해 적립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액을 합산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6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해서 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부터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분리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하는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2012년 이전	2013년 이후
적용 대상	공적연금 <sup>1)</sup> + 사적연금 <sup>2)</sup>	사적연금
한도	연간 600만 원	연간 1200만 원

1)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 군인연금 등)  
2) 연금저축, 퇴직연금

## Q 12

첫해에는 적립금 중 10분의 1을 떼어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운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가 시작되면 적립금 중 9분의 1을 떼어 연금으로 수령하고 남은 금액은 운용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운용수익에 따라 매년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매년 수령하는 연금의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Q 11

### 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나요?

연금 수령은 IRP 계좌의 계약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IRP의 계약 방식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나뉩니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지만, 신탁계약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먼저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 전환 특약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확정연금과 종신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연금은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을 정해 두고 매년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며,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종신연금을 택해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중도에 해지하거나 수령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의 경우도 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입자가 지급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지급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면,

구분	보험	펀드·신탁
연금 신청	연금 전환 특약에 따라 적용	신탁 계약에서 정한 연금 신청 방법(연금신청서 제출)
연금 지급 개시	만 55~80세 사이에서 지정	만 55세 이후 가입자의 신청 시
지급 유형	종신 연금형	보통 지급기간 10년, 20년 가운데 지정
	확정 연금형	확정 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가운데 지정 ※세제상 연금 수령 한도 이내로 받아야 연금소득으로 인정
적립금 운용	• 매월 적용이율로 변동 • 최저보증이율(금융회사마다 차이가 남)	•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 가능함 • 연금 지급을 위한 금융상품 매도 순서를 지정해야 함
장점	• 종신연금으로 연금 지급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음 • 연금 전환 이후 가입자가 운용 지시할 필요가 없음	•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음 • 중도에 적립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음
단점	• 적립금 적용금리가 떨어지면 연금액이 적을 수 있음 • 종신연금으로 연금을 받을 때 중도 해지 및 변경, 이 전이 불가능함	•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액 또는 연금 지급기간 등이 바뀔 수 있음 •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적립금 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함

※ 금융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앤드루 스콧



린다 그래튼

# 100세 인생, 다단계 삶을 준비하라

인터뷰이  
**린다 그래튼**  
 (Lynda Gratton,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  
**앤드루 스콧**  
 (Andrew Scott,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

## ‘교육-일-은퇴’ 전통적인 3단계에서 ‘다단계 삶’으로 바뀐다

오는 2030년이면 ‘평균수명 90세’의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소식이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Lancet)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수명 연장으로 늘어난 노후만큼 은퇴자금 또한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계산 때문일까? 요즘은 이 같은 소식을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100세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런던비즈니스스쿨의 린다 그래튼과 앤드루 스콧 교수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최근 저서 <100세 인생(The 100-Year Life)>을 통해 심리학과 경제학이라는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에서 고령화를 진단하고 장수 시대를 살아갈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일-퇴직’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3단계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 다시 말해 다단계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른 노령화로 더 길어진 삶에 직면하게 될 우리 입장에서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감했다. 개인과 기업들은 다가올 변화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여태껏 이뤄졌던 토론들은 대부분 지역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노화 현상 자체나 고령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됐고, 더 오래 사는 것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앤드루** 그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은 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더 오래, 더 짧게’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노화에 대해 얘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늘어난 수명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더 오래, 더 짧게’ 사는 것이 개인과 기업과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또는 비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뤄보고 싶었다. 우리 두 사람이 심리학과 거시경제학이라는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 ‘더 오래, 더 짧게’

### - 100세 인생을 설계하라

두 분은 각자 심리학(린다 그래튼)과 거시경제학(앤드루 스콧)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한 책 <100세 인생>은 인구통계학적인 느낌이 물씬 풍긴다. 이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린다** 우리 둘은 다가올 수십 년 내에 비즈니스와 일의 세계를 이끌어갈 미래 트렌드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런던비즈니스스쿨에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둘 다 인구통계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인구통계 자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주제에까지 충분한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다는 것에

당신들은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삶이 ‘교육-일-퇴직’의 전통적인 3단계에서 다단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린다** 지난 백 년 동안 우리는 기대수명의 폭발적인 증가를 목격했다. 평균적으로 10년마다 기대수명이 2, 3년가량 늘어났으며 이 같은 증가세는 한국에서 더욱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각 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6~9년가량 더 오래 살게 됐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기대수명이 100세 이상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금의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제도들이 평균수명이



65~70세일 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교육-일-은퇴'라는 3단계 모델은 우리가 65세까지 살 때에는 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00세까지 살게 되면 그 역할을 유지할 수 없다. 100세까지 살 때 3단계 모델이 무리 없이 작동하려면 두 번째 단계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7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일을 해야 이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요즘처럼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 20대 초반에 배운 기술을 가지고 70세 후반이 될 때까지 60년 동안 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인생 전반에 걸쳐 고용 시장에 적응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70세가 될 때까지 6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일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배우자와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더욱 소원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전통적인 3단계에서 '다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을 이미 목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개인들은 60년 동안 하나의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두세 개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삶을 설계할 것이다.

**다단계 삶은 결국 새로운 일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당신이 책에서 지적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노동의 공동화 현상, 즉 일자리가 없는 미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 해결책으로 인간이 절대 우위를 갖거나 비교 우위를 갖는 일자리를 노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

**린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쉽게 프로그래밍되고 기계로 구현 가능한 작업

들로 이뤄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수동적이고 육체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들을 대체해온 인공지능은 이제 좀 더 인지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마저 빼앗고 있다. 하지만 비반복적이고 인지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는 당분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기술이나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한 직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의료 산업에서 '진단' 분야는 비록 인간의 감독하에서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하지만 환자와 교류하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지지하며, 그들이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같은 일자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생산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사람 특히 고령자에게 초점을 맞춘 직업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직업들이 출현할 것이다. 기술이 위협하는 직업들은 항상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직업들보다 더 눈에 띄는 법이다. 어느 누가 소셜미디어가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십억 달러짜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견이나 했겠는가?

## 100세 인생의 필수자산 '무형자산'

-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형자산을 가꿔라

**더 길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형자산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무형자산이 무엇인가? 또 왜 중요한가?**

**린다** 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들의 자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자산이라고 하면



흔히 금융자산을 떠올리기 쉽다. 사람들은 은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면 금융자산뿐 아니라 지식과 기술, 좋은 동료와 평판,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같은 무형자산의 뒷받침 또한 필요하다.

**앤드루**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증식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가치가 하락하거나 감가상각이 일어난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무형자산에는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형자산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생산자산이란 직장에서 생산성을 높여 고소득을 실현하고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무형자산을 말한다. 당신이 일정 기간 동안 쌓아 놓은 지식과 기술, 끈끈한 인간관계, 좋은 평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물어보면 주로 건강, 우정, 사랑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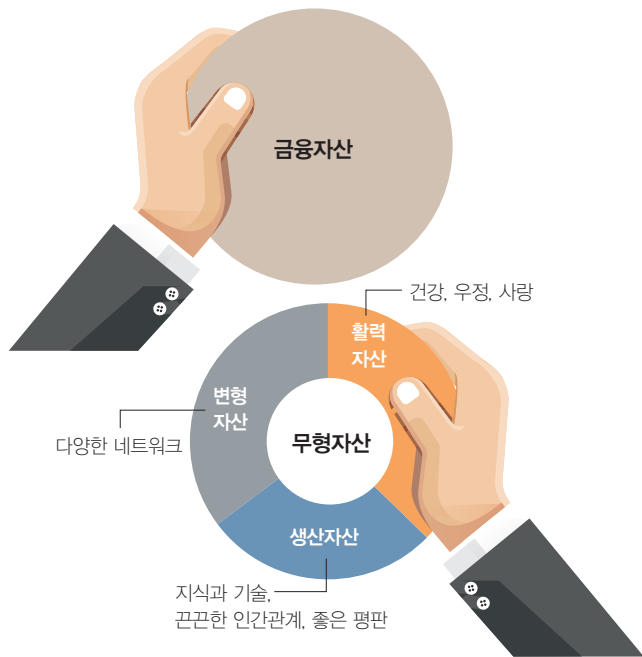
우리는 이러한 무형자산을 활력자산이라고 부른다. 활력자산은 사람들에게 행복, 성취, 동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준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과도기에 직면하고 변화를 요구받는다. 당신의 기술이 갑자기 쓸모없게 되거나 당신이 일하는 회사가 문을 닫는 것처럼 그 원인이 외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당신 스스로 새로운 교육을 받기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변형자산은 이 같은 변화와 과도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비용을 줄여주는 자산이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보다 누구를 알고 있는가이다.

**생산자산에서 말하는 '지식과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나?**

**린다** 지식과 기술이란 한 개인이 몸담고 있는 일자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금융자산과 무형자산**



리나 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계사이거나 엔지니어라면 그 일에 맞는 기술을 익혀야 할 것이다.

**앤드루** 100세 인생에서는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첫째, 교육은 지금처럼 직업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 집중되기보다는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늘어난 근로시간과 빠른 기술 진보 등을 감안하면 개인들이 보유한 기술은 아주 단시간 내에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T자형 학습이 필요하다. T자형 학습이란 업무 역량의 확대와 유연성 확보를 위해 처음에는 아주 광범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나중에는 인공지능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심화된 특수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다.

생산자산을 형성하는 데는 지식과 기술 못지않게 '포시(Posse)'가 중요하다고 했다. '포시'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린다** 생산자산을 형성하는 데 특히 중요한 것은 서로 강한 신뢰 관계가 있는 동료들과 일에 기반을 둔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해두는 것이다. 당신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면 기술과 전문 지식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전문성을 계발할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치고 돕고 소개해주고 소중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직업적인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포시'라고 한다. 꼭 같은 회사 동료가 아니더라도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 능력 계발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된다. 고용기간 동안 잦은 직업 이동이 있는 다단계 삶에서는 당신을 지지할 새로운 그룹과 '포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포시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많은 시간을 내어 비슷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전문성을 계발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건강과 균형 잡힌 생활, 그리고 사랑과 우정을 포함하는 친구 관계를 묶어서 활력자산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도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왔는데, 100세 시대에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앤드루** 더 중요해진다고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평균수명이 70세이고 65세 무렵 은퇴하는 전통적 3단계 삶에서는 인생 전반에 걸쳐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이 비교적 균형을 잘 유지해왔다. 하지만 3단계 삶의 모델을 100세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려

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두 번째 단계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금전적인 자산을 형성하는 데만 몰두해 활력자산 관리에 소홀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 조만간 활력자산이 고갈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자산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과 균형 잡힌 삶, 친구 관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건강, 균형 잡힌 생활, 친구 관계 등과 같은 활력자산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100세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무형자산 가운데 변형자산은 생산자산이나 활력자산에 비해 조금 더 생소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린다** 교육-일-은퇴로 이어지는 3단계 삶에서는 변화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100세 인생, 다단계 삶에서는 좀 더 많은 과도기가 필요할 것이다. 과도기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과도기는 한 개인이 새로운 단계를 설계하고 그 이전 것들은 뒤로 내려놓는 투자를 필요로 한다. 만약 누군가 40년간 보험업계에서 일하다 은퇴했다면, 그의 정체성에는 보험업 종사자로서 그의 특성들이 아주 깊숙이 배

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년간은 보험업 종사자로, 20년간은 선생님이로, 또 다른 20년은 자영업자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당신의 정체성 즉,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강력한 변형자산이 요구된다.

**크고 다양한 네트워크**

**- 지금 이대로의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라?**

**크고 다양한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달라.**

**린다** 과도기는 변화를 수반한다. 이때 당신이 기존에 형성하고 있던 네트워크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현재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과 상당히 유사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당신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당신이 본인의 특성을 변화시켜나가는 데 대해 반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들은 지금 이대로의 당신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을 다시 활성화하고, 당신이 변화하는 데 영감을 주고, 그 변화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특



이제 개인들은 60년 동안 하나의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두세 개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삶을 설계할 것이다.

—린다 그래튼

히 40~50세가 될 때까지 한 직장에서 일했다면,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다양성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변형자산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린다** 스스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 섞이고, 다양한 아이디어에 자신을 노출하려는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탐구할 시간을 찾지 못했던 주제를 다시 파고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일시적인 흥미로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핵심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당신은 다단계의 삶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들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젊음의 특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젊음의 특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린다** 청소년들은 변화를 잘 수용한다. 이에 반해 어른들은 자신의 특성들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긴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변화를 겪어나가야 하므로 변화하는 능력을 잘 보존해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더 젊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자신만의 시각과 습관에 함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 다시 젊음의 특성을 되찾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

**린다** 젊은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젊은 시절에 재미있게 했던 일과 취미들을 다시 찾아보라. 또한 항상 편안한 습관이나 쉬운 결정을 고수하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라.

## 길어진 삶을 위한 재정 관리

- 이들은 일하고, 하루는 봉사, 하루는 취미활동... '포트폴리오 커리어' 시대가 된다

다단계 삶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일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전망했는데,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린다** 포트폴리오 인생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종류의 직업을 경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앤드루** 후자와 같이 동시에 여러 종류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는 것을 통상 '포트폴리오 커리어'라고 한다. 포트폴리오 커리어를 영위하려면 넓은 연락망을 보유해야 하고, 집중력이나 효율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하나의 작업에서 또 다른 작업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도 어렵고 이를 유지하기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포트폴리오 커리어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전일제 근무를 피하고 싶은 인생 후반부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형태가 될 것이다. 상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자선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동시에 종종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일주일 중 이들은 돈을 버는 일을 하고, 하루는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고, 하루는 취미 활동, 또 다른 하루는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길어진 삶을 위한 재정 관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반드시 필**

당신은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의 부모와는 다르게 미래를 살아가야 하며, 더 많은 변화와 더 많은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

- 앤드루 스콧



**요한 일이기도 하다. 노후 재정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앤드루**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자산을 미래로 옮겨놓는 것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100세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오늘의 당신이 아니라 80세 즈음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동적으로 내리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월급의 일정 비율은 항상 장기저축예금 계좌로 이체한다든지, 저축을 최적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정리를 해보자. 앞으로의 100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일-퇴직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3단계 삶에서 벗어나 다단계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자산과 무형 자산을 갖춰야 한다고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고통스러운 변화가 반드시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가올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한마디 해준다면?**

**앤드루** 3단계 삶은 20세기, 평균수명 70세이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우리의 부모 세대에 맞춰진 이 같은 사회적 기준은 100세 인생에서는 제대로 작동하

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곧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오늘의 결정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의 부모와는 다르게 미래를 살아가야 하며, 더 많은 변화와 더 많은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

**빠른 고령화로 전통적인 삶과 새로운 유형의 삶이 지나치게 혼재해 있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젊은이와 고령자들에게 조언할 것이 있다면?**

**린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는 과거와는 아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라면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조금급하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더 길어진 다단계 삶을 향 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배워두라고 조언하고 싶다. 삶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에게는 수명이 길어졌고, 사람들은 더 오랜 기간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나이 든'의 의미도 달라졌다. 올드 올드(old-old)뿐 아니라 영 올드(young-old)도 있다. 생산성과 젊은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적 자극을 주는 일이 중요해질 것이다.





고령화와 저금리 환경에서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있다. 바로 '일'이다. 꾸준한 소득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노년은 평안하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 기술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어려운 이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있다. 1인(人) 1기(技) 실천자들이다. 자신만의 기술로 안정된 노후를 꾸려가는 이들을 만나본다.

## 은퇴 후 인기 인터넷 카페 '박쌤 전산회계' 운영하는 박용범 씨 “은퇴 후에도 자기 전공 분야 파고들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글 윤영호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전문기자

“세금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나라에서 살다 왔으니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 그러다 오기가 생겨 한 달 동안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공부했지만 떨어졌습니다. …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힘을 주셔서… 한 달 동안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공부한 끝에 전산회계 1급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회계·경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실시한 국가 공인 전산회계 1급 시험에 합격한 한 탈북민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카페에 올린 사연이다. 이 탈북민은 “꼭 합격 수기를 보고 싶다는 운영자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공부를 계속했다”면서 “나도 앞으로 운영자님 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탈북민도 이해할 정도로 쉽고 재미있는 전산회

계 인터넷 강의(인강)를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이 카페는 ‘박쌤 전산회계(cafe.naver.com/parksamaccount)’. 운영자는 상업계 특성화고인 제주중앙고(구 제주상고) 회계 교사 출신인 박용범 씨(55). 그는 “모교에서 25년간 교사 생활 할 때보다 지난 3년간 감사 인사를 더 많이 받았다”고 감격스러워했다.

그가 이 카페를 개설한 것은 명예퇴직 다음 해인 2014년 5월 초. 처음 1년간은 회원이 3000명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입소문을 탄 덕분에 한 달에 3000명씩 늘어나 지난 6월 13일 현재 회원은 6만1771명에 달한다. 박 씨는 “무료 인강인 만큼싼 게 비지떡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강의를 들어본 후 바로 회원이 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나처럼 연금 받으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를 위해 뭔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부채 의식에서 시작했는데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특히 젊은 회원들의 감사 메시지를 읽다 보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에게 뭔가 희망을 준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낄 때가 많다.”



**제주도 올레길 한번 못 가고 앞만 달리던 박쌤, 퇴직 후엔 해외여행도 하며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즐겨**

그는 은퇴 이후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졌다. 교직에 있을 때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지만 지금은 건강도 회복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지낸다. 지난 5월 중순 이사 온 경기 부천시 중동의 아파트 인근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 다니면서 운동 삼아 열심히 수영도 한다. 처음 명예퇴직을 반대하던 부인도 지금은 큰 만족감을 표시한다.

생활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는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는 데다 그가 저술한 교과서에서 나오는 인세도 상당한 수준이다. 여기에 무료 인강이 인기를 끌면서 인강용 강의 교재 판매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세 가지를 합하면 소득도 현직 교사 시절 못지않은 수준이다.

그는 5월 말 10일간 일정으로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로 부인과 함께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현직 교사 시절 제주 올레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는데 퇴직 이후엔 부인과 함께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 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치앙마이에서 지낸 이후 치앙마이 예찬론자가 됐다.

“겨울엔 한국의 초여름 날씨인 데다 방콕에 비해 물가도 싸고 편의시설이 잘돼 있어 참 편한 곳이다. 현지 마트에 가면 한국 소주와 라면도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다. 이번에도 그곳 17평 콘도에







머물면서 풀장에서 수영을 하다 커피를 마시고, 아내와 함께 마사지를 받는 등 그야말로 유유자적을 즐겼다. 필리핀 세부나 일본 오키나와 등에도 다녀봤지만 5시간 안팎의 비행으로 갈 수 있는 동남아 여행지 가운데서는 치앙마이가 최고인 것 같다.”

그가 은퇴를 앞당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상업계 특성화고에서는 유명한 교과서 저자다. 그가 저술한 <회계원리>와 <회계정보처리 시스템>은 매년 3만 권 정도 팔린다. 전국의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이 6만 명 정도이니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셈. 비결은 무엇일까.

“한문 용어를 일일이 풀이해놓았고, 학생들이 직접 풀어볼 수 있는 실전 문제를 많이 넣었다. 또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나 도표를 많이 활용했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을 가르친 회계학 교과서가 실전 문제 풀이도 없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보자는 도전 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10여 년 전 1년간 작업한 끝에 내놓았고,

이후 매년 조금씩 손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의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공략했다는 점이다. 처음엔 재능기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무료 인강이 이제는 수익까지 내고 있으며 ‘평생 직업’을 새로 갖게 된 셈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MBC 라디오 ‘지금 은 라디오시대’와 미래에셋생명이 함께 주최한 ‘은퇴 설계 수기공모전’에 응모해 가작으로 입선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강의 교재를 많이 팔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처럼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처음엔 회비 1만 원이라도 받을까도 생각했는데 ‘무료 강의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는 언제 올리나요?’라는 댓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을 베푼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 그게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원동력으로 보인다.”



**재능 기부로 시작한 무료 인강으로 수익도 내고 평생 직업도 생기고... 학생·취준생·경단녀들에겐 희망 선물**

현재 전체 회원 가운데 여성이 84.6%로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7%, 30대가 20%다. 그는 “그만큼 취업이 어렵다는 증거 아니겠느냐”면서 “특히 어린 자녀를 재운 다음 늦은 밤에 한두 시간씩 공부해 합격했다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 그 처절한 몸부림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인강을 구상한 것은 교직 생활을 접은 후 우연한 기회에 인천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할 때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교에 입학하기 직전 3개월여의 공백 기간에 전산회계 관련 학원에 다녔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학원비

가 100만 원 안팎이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 해도 한 과목당 5만~7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그는 이런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다. 전국의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들과 전산회계 자격시험을 공부하는 취업준비생(취준생)을 대상으로 전산회계 1, 2급 및 전산세무 2급 자격증 관련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 우선 전산회계 2급 강의부터 올렸더니 반응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격증을 따고 처음 세무사 사무실 같은 곳에 들어가도 월급은 100만 원 안팎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말정산 처리 및 법인세 세무 조정 업무까지 익히면 연봉도 오른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직이어서인지 경단녀들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원 가운데는 과거 그의 제자도 있다. 고교 재학 시절 미처 따지 못한 자격증을 이제야 따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저 기특할 뿐이다. 현재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한 제자도 회원으로 들어와 있다. 그는 그에게 따로 강의 교재까지 무료로 보내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지금은 인기 강사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학창 시절 회계 과목이 너무 어려웠다고 한다. 과거 상업계 고교에선 졸업을 하려면 주산 및 부기 3급 자격증을 각각 취득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부기가 너무 어려워 제때 취득하지 못했고,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격증 시험에 겨우 합격해 졸업할 수 있었다.

그가 회계 과목을 제대로 배운 것은 대학 시절 다닌 회계학원에서였다. 회계 기초를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회계학원에 다녔는데 그 원장은 회계를 실생활과 연결해 너무나 쉽게 설명해줬다. 회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때 처음 깨달았다. 그는 나중에 교사가 돼서도 그 원장의

강의 기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



**수익성만 보고 생소한 분야 좇기보다 자신이 평생 해오던 분야에서 인생 이모작 준비하길**

1962년 제주도 한림읍에서 태어난 제주 토박이인 그는 제주대 회계학과 81학번.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교통비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다. 결국 1년간 휴학을 하고 서귀포의 롯데칠성음료 감귤 가공공장에서 돈을 벌다 보니 졸업이 1년 늦어졌다. 그가 인강을 무료로 하기로 한 것도 이때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가 교사가 된 것은 운명이라고 할 만했다. 1986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병 ROTC 장교로 임관해 군대에 간 그는 군대 체질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잘 적응했다. 일찍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소위 때 인사 참모로 발탁됐고, 한때는 직업군인으로 남을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1987년 말 대통령 선거 때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다 전역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한 제약회사에 입사해 1년간 근무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보람도 느꼈으나 제약회사 영업이 체질에 맞지 않아 과감히 사표를 내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 무렵 모교 은사였던 현 제주대 이상봉 교수를 서울 영등포역에서 우연히 만난 게 그의 운명을 바꿨다. 이 교수가 반가워하면서 그의 손목을 끌었다.

“다른 일로 서울을 찾은 이 교수님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모교에서 교사 한 명을 구해달라고 하던데 자네는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내려가자’고 하셨다. 다음 날 모교에 가서 역시 은사였던 모교 교장 선생님을 복도에서 만나 인사만 하고 제대로 된 면접 절차도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수업에 들어갔다. 1989년 5월의 일이었다. 대학 다닐 때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부전공으로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모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할 줄은 몰랐다.”

모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해선지 처음엔 의욕이 넘쳤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자퇴하려던 학생들의 마음을 잘 돌려세운 게 알려져 한국중독상담협회 등에 강연을 나가기도 할 정도였다. 취업 담당 교사로 일하던 2011년에는 ‘선취업, 후진학’ 목표를 관철시켜 졸업생 취업자를 2009년 6명에서 2012년 89명으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맡은 일 외에도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각종 행정 공문을 처리하느라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 되면서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한 것.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쳐 어깨를 돌리지 못할 정도가 됐고, 만성 잇몸병으로 치아를 3개나 뽑았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는 앞으로 취준생들을 위해 무료 인강 카페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한다. 취업은 해야 하는데 인터넷 강의로 20만~30만 원이 없어 스펙 하나를 추가하기도 힘든 취준생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스펙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시험, 전산회계 시험, 한국사 능력시험을 꼽는데 이 가운데 컴퓨터 활용 능력시험을 위한 인강 카페를 개설할 계획인 것.

“이미 젊은 선생님 두 분을 섭외해 컴퓨터 활용 능력시험 카페를 만들자고 제안했더니 이들이 흔쾌히 응했다. 이들에게 1년간 생활비를 대출 생각이야. 현재 이분들이 강의 교재를 집필하는 중인데 9월부터는 동영상 촬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취준생을 위한 기본적인 스펙 3개 가운데 2개는 무료로 해주고 싶다.”

그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치열한 경쟁 사회다. 노후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자신이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도 수익성이 높다고 쫓아다니다간 패가망신하기 쉽다. 자신이 평생 해온 분야에서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해 회원이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다. 최소한 용돈 벌이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재능 기부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다.”



### 전문가 진단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인17기> 저자

박용범 씨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인생 이모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춧돌은 가장 튼튼한 사학연금으로 준비했고, 회계 지식과 교육이라는 탄탄한 전문기술에 기반을 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고정비용이 거의 없어 손실 위험도 없습니다. 매년 3만 원이 팔려 나가는 책의 인세를 받을 뿐 아니라 카페 무료 강의를 통해 사회 공헌도 하고 있습니다. ‘연금-일-사회 공헌’이라는 3박자를 다 갖춘 셈입니다.

### “연금-일-사회 공헌 3박자 모두 갖춘 이상적인 인생 이모작 포트폴리오 사례”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첫째는 탄탄한 연금입니다. 인생 이모작을 성공한 사람 중에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많습니다. 연금을 기반으로 인생 이모작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남이 따라오기 힘든 전문성에 기반을 둔 일을 했고 고정비용이 들지 않는 창업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철저한 시장조사를 했고, 열심히 했으며 무엇보다 열정적입니다. 마치 젊은이처럼 인생의 과도기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 미래에셋 TIGER 글로벌 4차산업혁신기술 (합성 H) ETF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펀드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3126호 (2017.07.28 - 2018.07.27)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3D 프린팅에서 바이오까지 미래에셋이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TIGER ETF**와 함께하세요.

● ETF 명칭 : TIGER 글로벌 4차산업 혁신기술 (합성 H) ● ETF 유형 :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ETF) ● 기초지수 : 모닝스타 기하급수적 성장기술지수(Morningstar Exponential Technologies Index) ● 종목코드 : 275980 ● 상장일 : 2017년 8월 1일 ● 환해지 : 환해지형 (USD) ● 세금 : 배당소득세 (보유기간과세) ● 상장거래소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 총보수 : 연 0.40% (운용 : 0.30%, 지정참가 : 0.045%, 신탁 : 0.025%, 일반사무 : 0.03%) ※ 특정금전신탁이나 랩어카운트 펀입 시 신탁보수 또는 랩보수가 부과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수수료 외에 증권거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가 답이다

택시 한 대 없이 운송 서비스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우버 택시'. 자사 소유 호텔이 하나도 없는 세계적인 숙박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과 활용으로 펼쳐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많은 데이터, 가장 빠른 서버, 막강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춘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다. 그 길을 찾아보자.

글 김학균 미래셋대우리서치센터 수석매니저

어디를 가나 '4차 산업혁명'이 화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했고, 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조선 산업 위기 극복'이라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미래학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는 금융시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화두가 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급기야 투자의 귀재 위

런 버핏으로 하여금 "IBM 대신 아마존과 구글 주식을 사야 했다"라는 탄식을 하게 만들었다. 아마존은 상장 이후 주가가 640배나 올랐다. 4차 산업혁명이 대세는 대세인 모양이다.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개념일까?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이 모임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됐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논자마다 강조점이 다른 경우가 많고, 특히 앞서 경험했던 산업혁명들과 비교해보면 다소 모호한 측면도 없지 않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라는 명확한 발명품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발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기존 기술의 융합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념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모아진 인간의 행위와 생각을 온라인상의 거대한 데이터 저장고에 모아 활용하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데이터를 인지(센서)하고, 이를 서버에 전달(사물인터넷)하고, 저장(클라우드)된 정보를 활용(빅데이터)하는 일련의 과정이 4차 산업혁명의 순환을 나타내준다. 우리 대부분은 부지불식간에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매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휴대폰은 강력한 센서이자 데이터 전달자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을 찍고 검색을 하는 행위는 데이터를 인지하는 출발점이

다. 사물인터넷(IoT)으로 대표되는 연결의 증대는 이를 바로 거대한 데이터 저장고로 보낼 수 있게 해준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누가 세상을 이끄나?

세계 주식시장 1위 애플, 구글(2위), 아마존(5위), 페이스북(6위)··· 데이터 지배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군이 주류로 부상한 지 오래다. 7월 27일 기준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8001억 달러)이다.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6625억 달러)과 페이스북(4800억 달러)은 시가총액 순위 2위와 6위에 올라 있다. 융합기술을 상거리에 적용하고 있는 아마존(5032억 달러)이 시가총액 순위 5위이고, 반도체를 통해 이들에게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삼성전자(2910억 달러)가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밸류체인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이 회사들이 데이터 세상의 지배자이기 때문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원천은 데이터에 있다. 더 많은 사용자가 활용할수록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의 가치는 높아진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수집

기술 진보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1960~90년대	2000년대 중반
기술	증기기관의 발명과 철도 건설	전기와 생산·조립라인의 출현	컴퓨터 출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의미	물과 증기의 힘을 이용한 기계화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	정보기술을 통한 자동화	디지털 기술 융합





세계 주식시장 1위 애플,  
구글(2위), 아마존(5위), 페이스북(6위), 삼성(14위)···  
아마존은 상장 이후 주가가 640배나 올랐다.  
4차 산업혁명의 밸류체인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된 데이터를 수집·분류·해석해 광고 판매에 이용  
하는 기업들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가치는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나온다. 구글을 통해 검색할 때 가장 먼저 뜨는  
웹페이지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링크한  
사이트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선택이 구글 검색  
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가입자들의 성향이 더 자세히 드러  
난다.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지는 친구는 어떤 식  
으로든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일 가능  
성이 높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행위 역시 나  
름의 취향을 드러내준다. 페이스북은 정교한 검  
색 기능을 통해 이런 일련의 활동들 속에서 나  
름의 보편성을 도출해낸다. 정보 해석을 통해 광고  
주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게 페이스북  
의 경쟁력이다.

한편 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추가적인 비용 없이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추가비용 없이 복제될 수 있고, 데이터를 해석하  
는 데 사용되는 하드웨어 역시 가격이 급속하게 떨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칩의 계산 능력이  
대략 18개월에 두 배씩 개선된다는 ‘무어의 법칙’은  
기술 진보에 따른 하드웨어 가격의 하락을 잘 설명  
하고 있다.

### 새로운 개념의 산업 모델 등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 자사 소유 차량 한 대 없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우버’

모바일 차량 중개 업체인 우버는 운송 분야의 전  
문가는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의 헤게  
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숙박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  
앤비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재고 없이 돈을 벌  
고 있다. 우버는 자사 소유 차량이 한 대도 없고,  
에어비앤비는 자사 소유의 호텔이 전혀 없다. 전통  
적으로 중시되는 기업 활동인 재고 관리가 이들에  
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활동은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포  
장되기도 하지만,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게 적당할  
지 모르겠다. 상대방에 대한 호의가 금전적 거래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시간 네트워크의 활용으로 비즈니스 참  
여자는 확대될 수 있지만, 이익은 데이터 지배자에  
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운송 서비스의 경우 지  
역 운송 사업자들에게 돌아갔던 부(富)가 데이터를  
지배하는 우버에 돌아가고 있다. 더 많은 데이터,  
가장 빠른 서버, 막강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춘  
자가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다.

#### • 4차 산업혁명의 그림자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성과가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변화보다  
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혁신이 인류에 훨  
씬 유익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보다 깨끗한 물과 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의 발명이 인류의 진보에 훨씬 더 기여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생산성 제  
고에 기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생산성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  
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생산성 개선 속도  
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 4차 산업혁명의 편익, 기존 잣대로는 평가 어려워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공식적으로 집계  
되는 생산성의 후퇴는 기존의 경제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지는 편익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



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금전적으로 계량화하기  
힘든 효용을 누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얻는 무료 정  
보와 엔터테인먼트는 분명 효용을 높여주지만, 시  
장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이런 활동은 대표적인 성  
과 측정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

#### ‘구글세’ 등 규제 리스크 본격화되기 전까지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 약진 계속될 것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효과는  
명확하다. 마틴 울프의 주장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진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논  
란이 빚어질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창업자(데이터를 지배하는 엔지니어)와 투자자  
(주주)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귀속되고 있다는 점  
은 분명하다. 구글과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등의 사례에서 보듯 4차 산업혁명 생태계의 핵심  
밸류체인을 장악한 기업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부  
를 쌓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좋은 기  
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장기간 많이 올랐지  
만, 투자자들에게 참담한 실패를 안겼던 2000년  
대 초 닷컴 버블에 비할 바는 아니다. 당시 버블 국  
면에서는 이익은커녕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 기업  
들이 시장에서 엄청난 시가총액을 받았다. 현재 애플의  
PER는 16.9배, 구글은 30.4배, 페이스북은  
33.1배 수준이다.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지만 과  
거 성장주 강세 국면에서 나타났던 과도한 프리미엄  
은 없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왜 투자가 답인가?

창고 안에서는 '아마존로봇(AR)' 1000여 대가 곳곳을 누비고 있었다. 대형 로봇 청소기처럼 생긴 아마존로봇은 2000만 종의 물품이 쌓인 복잡한 재고 더미에서 주문받은 상품을 정확하게 찾아내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았다. ... 이 창고 안의 로봇들은 아마존 서버(대형 컴퓨터)에 있는 인공지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아마존의 인공지능은 홈페이지와 창고 내의 모든 것을 파악해 로봇을 조종한다. (출처: 조선일보 7월 24일자)

이 기사는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리딩 기업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서 벌어지는 일을 묘사한 것이다. 축구장 46개 크기의 창고에 직원 수는 1000명에 불과하다. 아마존은 이러한 인공지능 창고를 통해 경쟁자들에 비해 4분의 1 수준의 물류비용만 부담한다. 비용 측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은 아마존 포비아(공포증)에 걸린 지

오래다.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열매는 해당 분야의 지배적인 기업에 집중된다. 둘째, 사람이 하는 일은 점차 줄어든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인이 직접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기업을 만들거나, 그런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면 답은 하나뿐이다. '투자'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지배적 기업의 주식을 가지면 된다. 근로자들은 이제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가지는 자본가를 겸업해야 한다.



### 어떻게 투자하나?

4차 산업혁명 관련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그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관련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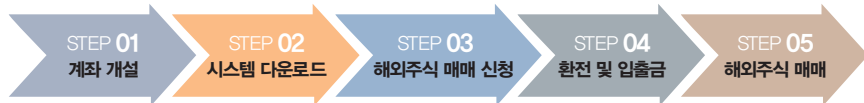
먼저 직접 주식을 사는 방법을 알아보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투자를 원한다면 증권사에 가서 '해외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 매매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기준에 가지고 있는 주식 위탁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이용해도 된다. 기존 계좌에 '외화증권 약정' 및 '해외주식 매매 신청'을 등록하면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해진다. 단 기준에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다면 영업점에 가서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증권사 계좌는 약정된 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보면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도 많을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데다, 주식을 직접 사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분산이 되지 않아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회사들은 대부분 하이테크 기술주다.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이익이 예상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높은 기업도 있다. 이런 점이 염려되는 투자자라면 직접 해당 주식을 사는 대신, 4차 산업혁명 관련 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하는 편이 낫다. 종목을 직접 선택하는 어려움을 전문가가 대신해주고,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하므로 위험을 줄여준다.

#### 해외주식 매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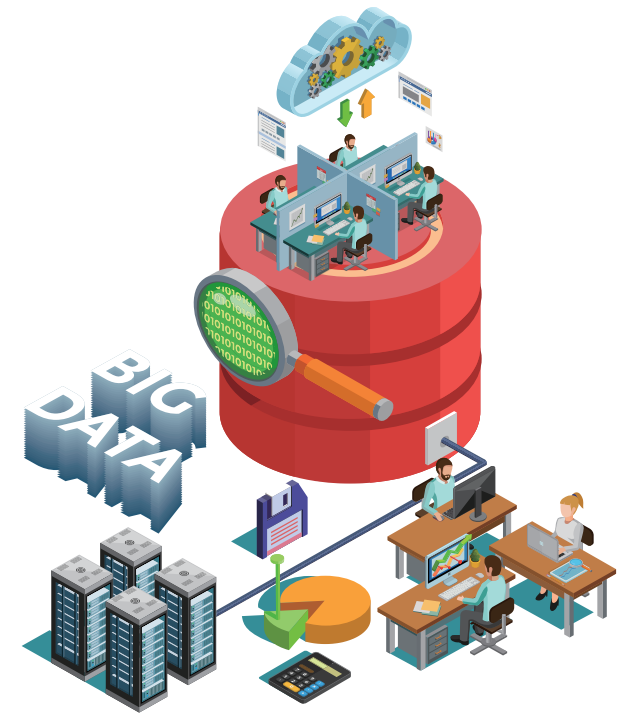


모바일 차량 중개 업체인

우버는 운송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숙박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재고 없이 돈을 벌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많은 데이터, 가장 빠른 서버, 막강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춘 자가 부와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다.



투자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주도주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 등과 같은 시장 논리보다 시장 밖의 규제 리스크라고 본다. 기업을 넘어 인류의 의제까지 포괄하는 활동 범위, 국가를 뛰어넘는 코스모폴리탄적 활동이 우리 시대의 '빅 브라더' 출현이라는 경계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핵심 가치가 인터넷상의 정보로부터 나온다면, 원천적인 데이터 제공자들도 구글과 페이스북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일부를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학 철학자인 재런 리니어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정보를 제공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제공한 데이터에 걸맞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독

일 연방법원에서는 구글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원저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구글세' 신설 등과 같은 광범위한 글로벌 차원의 공조가 나타나야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역으로 이런 조직적 대응이 없다면 웬만해서는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의 약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어두운 대목은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도 있다는 점일 것이다. 실제로 증기기관의 발명은 운송 수단으로서의 말의 지위를 빼앗아버렸다. 사람이 말과 다른 것은 자본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어쩌면 향후 로봇에게 잃을 소득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테마

4차 산업혁명 관련 테마	개요·현황
3D프린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린팅하려는 대상을 3D모델링 또는 3D스캐너로 디지털 정보화하여 가루나 액체 형태의 재료를 사용. 한 층씩 적재해 그 대상을 입체로 프린팅하는 것</li> <li>3D프린팅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3D프린팅 기술이 기존 일반 산업 생산뿐 아니라 건축, 예술, 첨단 우주기술뿐만 아니라 음식, 잡화 같은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li> <li>시장 조사업체 IDC는 2020년까지 3D프린팅 시장의 글로벌 수익이 354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li> </ul> 
로봇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봇시장은 공장의 생산 로봇부터 시작해 경찰 로봇, 패스트푸드점의 고객 응대 로봇, 사람의 일을 같이 돕는 협업 로봇까지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음</li> <li>제품 생산과 관련된 산업용 로봇시장은 중국 중심으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 협업 로봇과 3D프린팅은 연 50% 이상 고속성장 예상</li> <li>의료, 청소, 보안, 농업, 군사 등의 서비스 로봇시장은 선진국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li> <li>글로벌 컨설팅업체 BCG는 로봇시장이 2015년 말 2조 원에서 2025년까지 55조 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li> </ul>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약 개발 및 제조 공정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 새로운 정보기술과의 융합으로 효과적인 신약 개발이 기대됨</li> <li>유전자 분석·편집기술과 바이오 빅데이터 기술, ICT 기술이 신약 개발 및 제조에 혁신을 가할 것</li> <li>지난해 미국 대선 주자들이 헬스케어 분야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이 분야 주가가 약세를 보였으나 헬스케어주의 순익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 장기적으로는 반전이 기대됨</li> </ul> 
소셜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 안부 묻기에서 시작한 소셜미디어서비스는 이제 개인 유저들이 사진, 문자, 동영상이란 도구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 오락, 사회적 현상을 창조해내는 콘텐츠 창조자가 되었음</li> <li>소셜미디어 서비스 회사는 대부분 모바일 광고로 거둬들이는 매출과 게임, 동영상, 음악 등 콘텐츠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음</li> <li>사용자의 지속적인 참여도와 사용도를 높이고자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달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테마</li> </ul> 
인터넷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 인터넷 쇼핑 회사인 아마존과 이베이, 구글맵, 유튜브와 같은 유명 인터넷 웹사이트와 크롬북, 크롬캐스트와 같은 하드웨어까지 생산·판매하는 종합 인터넷 회사인 구글, 소셜미디어 분야의 최강자이면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페이스북이 관련 테마 대표 종목임</li> <li>기존 인터넷 서비스 영역에서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새로운 먹거리 기술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투자에도 유망한 테마</li> </ul> 
클라우드 빅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사업자 서버에 개인 혹은 회사의 정보를 저장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하에서 언제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함. 기업용 클라우드 제작 회사, 소프트웨어 제공 회사 등이 테마에 포함됨</li> <li>빅데이터의 특징은 대량, 빠른 생성 속도, 다양한 종류로 대표됨. 이러한 빅데이터를 컴퓨터를 통해 분석해 효율적인 마케팅 자료 제공, 질병 예측 및 진단 등 다양한 기업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li> </ul> 
중국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넓은 국토 면적은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부추기는 지형적 요인. 인터넷 보급이 활발해진 것도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게다가 중국의 성장정책도 생산에서 소비로 이동 중</li> <li>2013년 이미 미국을 추월한 중국의 온라인 소비는 2015년에도 33% 증가했음. 2015년 11월 싱글데이 중국 소비자는 약 16조 원 소비, 이 중 70%는 모바일로 구매(알리바바 조사)</li> <li>중국 인터넷 접속인구 비율은 아직도 50% 수준이므로 소비시장 성장 여력이 매우 큰 시장임</li> </ul> 

항공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물인터넷(IoT) 기술, 3D프린팅 기술 발전으로 항공우주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 또한 위성이 관측 중인 다양한 지구 정보가 기존의 1차, 2차 산업 기술 혁신의 촉매가 될 전망</li> <li>스마트 농업, 스마트 공장, 지능형 물류 등</li> <li>소형 궤도위성을 이용한 우주 인터넷 기술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li> <li>따라서 인공위성 제조 및 인공위성 부품 관련 산업주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임</li> </ul> 
바이오 이노베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오 이노베이션 섹터는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인공지능(AI), 3D프린팅 기술, 로봇 기술 등이 총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음</li> <li>활용 예 - 인공지능 약사, 체내 삽입형 의료기구, 실시간 건강 체크가 가능한 인터넷 장치 의료, 웨어러블 진단기구 등</li> <li>다양한 종류의 건강 관련 혁신 기술이 쏟아져나오고 있으나 투자를 위해선 개인의 질병 정보 관련 보안 이슈, 실용성에 관한 이슈는 꼭 따져봐야 할 것</li> </ul> 
자율주행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 함. 인공지능, 머신 러닝, 센서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발·발전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산업도 빠르게 발전 중</li> <li>벤츠, BMW, GM 등 기존의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인텔 등 IT 회사들도 개발 중이거나 개발에 참여하려고 계획 중에 있음</li> <li>기술 검증, 자율 주행 관련 법 개정 등의 이슈로 본격적인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장기적 시각 필요</li> </ul> 
가상현실(V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현실 기술은 컴퓨터, 특수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어 내는 기술</li> <li>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운동, 관광, 음악, 의료기술, 건축,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응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li> <li>시장 조사업체 IDC는 VR 및 증강현실(AR) 시장 규모가 2016년 52억 달러에서 2020년엔 162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li> </ul> 
스마트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기술(ICT)의 집약체인 스마트시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 감소,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 등을 추구하는 도시</li> <li>스마트시티 테마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스마트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들이 융합되어 적용되는 테마</li> <li>스마트시티 사업에 선진국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 미국은 2015년부터 16억6000만 달러를 R&amp;D에 투자 중이며 중국은 2020년까지 5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 영국은 가장 빠른 2012년부터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자 중</li> </ul> 
디지털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테마는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건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모바일 결제 및 파생되는 금융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관련 회사를 포함</li> <li>결제, 송금 등 기존 금융 서비스 수익 기반이 건조한 기업들이 모바일 결제, 금융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बैं킹 이노베이션 솔루션(예: PayPal의 사기거래 탐지 시스템)을 제공하며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li> </ul> 
사물인터넷 (I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oT는 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의 약자.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정보기기끼리 사람의 개입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술</li> <li>근거리 통신기술(블루투스, NFC, WLAN 등), 이동통신기술(4G, 5G), 유선통신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센싱 기술 등이 해당 테마의 주요 기술</li> <li>IoT 마켓은 성장 가능성이 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li> </ul> 





## 행복한 노후 망치는 중대 질병 피하려면?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당시 평균수명은 50세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은 60년 넘게 살았고 앞으로도 여생이 30여 년 남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오래 살수록 남은 인생이 늘어나는 아이러니 속에서 살고 있다. '활력에너지'만 잘 키우고 쓰면, 나이 먹는 게 늙는 게 아니다. 한 해 몸을 아껴 쓰고 단련하면 한 살 더 살게 되는 구조다. 건강인에게 은퇴 후 나이는 '원(one) 플러스 원'이다.

글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영상의학과 전문의

### 고기가 물리는 곳에 그물을 던져라?

건강검진, 기본 검사 외에 건강 위험 수준에 따라 선별 정밀검사해야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도 나중에 폐암, 대장암 등이 뒤늦게 발견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종합건강검진이 모든 질병을 찾아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의 나이나 건강 위험성에 맞도록 검진을 좀 더 집중해서 받지 않았거나, 검진 후 추가적인 선별검사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일정 비용으로 증상이 없는데도 미리 검사를 받아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혈압, 혈당, 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검진은 최소 비용을 들여 매년 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건강 위험 수준에 따라 선별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고기가 물리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뜻이다.

현재 대부분의 상품형 또는 패키지형 종합검진에는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유방촬영술, 자궁세포진 검사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대장암이 중년층에 급속히 늘고 있다. 따라서 비만인 사람, 육식을 즐기는 사람 또는 40세 넘어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대장 내시경검사를 따로 받는 것이 좋다. 처음 검사에서 정상이면 5년 간격으로 받으면 된다.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은 서구와 달리 5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 나이대 여성은 유방촬영술과 초음파검사를 둘 다 받는 게 좋다.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자라면 복부초음파 외에 좀 더 정밀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번은 해보는 게 좋다.

50세 넘어 비만이거나 흡연자는 심장 CT를 찍어 관상동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은퇴 후에 멀쩡히 지내다 심근색색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심장에서 뇌로 들어가는 목 부위의 굵은 동맥인 경동맥을 초음파로 살펴보는 검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동맥이 얼마나 동맥경화로 좁아져 있는지를 보면 뇌졸중 발생을 대략 예측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으면 반드시 눈의 망막 변화도 미리 봐야 한다. 뒤늦게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으로 진단될 수 있다.

55세 이상 남자는 직장초음파검사로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체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복부 CT로 검진이 가능하나, 방사선 피폭 때문에 자주 받을 수 없다. 정 체장암이 걱정된다면 방사선 피폭이 없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으로 검사받을 수 있다.

20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50세에 접어들면 벌써 흡연 경력이 30년이다. 이때쯤이면 폐암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가슴 엑스레이로 폐암을 조기 발견하기는 어렵다. 30년 이상 피운 경력이 있다면 저선량폐CT를 찍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통상적인 CT 방사선 피폭량의 5분의 1 수준으로 찍을 수 있는 CT다.

암을 정복하는 것은 최첨단 치료법이나 최고 명의가 아니다. 조기에 발견해 조기 치료하는 것이 암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행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과 여성의 자궁경부암은 간편한 검진법이 있다. 위암은 1,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으면 되고, 자궁경부암은 자궁세포진검사로 조기 발견할 수 있다.

건강검진은 날짜를 정해두고 하는 것이 빼먹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는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생일 날 즈음에 또는 결혼기념일 즈음에는 반드시 암 검

진을 하는 관례를 만들어놓으면 좋다.

어떤 이들은 건강검진을 받은 뒤 검진 결과만 통보받고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거기서 빈틈이 생긴다. 분명히 검진 결과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검진받은 것 자체로 안심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다. 건강검진의 중요한 목적은 전체 결과를 놓고 의사의 진찰과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설사 검진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흡연, 비만 등 건강 위험 요인을 제거하려는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정상'이라는 의미는 현 단계에서 주요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결코 당신의 건강 자체가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건강을 해치는 당신의 생활 방식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건강검진을 계기로 은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다듬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다음 건강검진이 기다려질 정도로 당신의 몸을 바꿔본다는 생각으로.

### 탄탄한 근육이 활기찬 은퇴 생활을 보장한다?

근감소증 오면 낙상 빈도 높고, 입원을 증가...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량 늘려야

요즘 활기찬 장수를 위한 최고의 의학적 화두는 근육(筋肉)이다.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여도 근육량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신체 건강지표가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질병 패러다임이 근(筋)감소증이다. 나이 들수록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뼈가 부실해지는 골다공증과 유사한 현상이 근육에도 발생한다는 개념이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국제 기준에 따라 성인 2만812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근육량은 50대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에서는 남자의 44%가 근감소증에 해당했다. 여자는 41%다. 아울러 근감소증 그룹에서 심장병, 뇌졸중



중년이 되어 얼마나 근육량을 늘리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과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근육량과 운동량을 늘리면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생산라인을 늘려서 더 많은 활력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등 심혈관계질환 위험이 정상 그룹보다 최대 4배 높게 나타났다.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 50세가 넘어가면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도 근육량은 매년 1%씩 줄어든다. 호르몬의 변화, 신체 활동 감소, 만성염증 지속 등에 따라 근육이 흐물흐물해지고, 그 자리를 체지방이 채우는 것이다. 근육 내 지방이 쌓이면 염증 유발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분비돼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효율을 떨어뜨려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근감소증이 오면 낙상 빈도가 늘고, 신체 기능 장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입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된다. 중년이 되어 얼마나 근육량을 늘리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과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근육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로는 ▲걸음 속도가 줄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지고 ▲손으로 쥐는 악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피로감을 쉽게 느끼거나 ▲체중 변화 없이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경우 등을 꼽는다.

이에 인생 후반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근육이다. 세포의 에너지 공장은 미토콘드리아다. 여기서 우리

가 마신 산소와 먹은 음식을 갖고 활력에너지라 불리는 ATP를 만든다. ATP 생산량이 많을수록 활력이 넘친다. 그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은 곳이 근육이다.

인간처럼 게으른 동물이 없다. 우리 몸은 자기에 게 필요한 양만큼만 에너지를 생산한다. 우리 몸이 쉬면 미토콘드리아도 논다.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활력에너지 ATP 생산을 늘린다. 근육량과 운동량을 늘리면 미토콘드리아는 생산라인을 늘려서 더 많은 ATP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최근 주목받는 미토콘드리아 활력 장수법이다. ATP

### 은퇴 후 삶 망치는 이 질병만은 피하자!

여러 질병 중 최악의 상황이 잘 낫지도 않으면서 의료비는 꾸준히 들고, 독립생활이 힘들어 누군가에게 간병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다.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는 처지가 된다. 인생 후반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10대 질환의 조기 발견법과 예방법을 소개한다.

#### 산소통 끼고 사는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에 만성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지는 병이다. 들이 마신 숨을 내뿜기 어려워 허파짜리가 기능을 잃는다. 만성적 저산소증에 시달린다. 나중에는 이동용 산소통을 옆에 두고 산소콧줄을 매달고 산다. 폐 기능이 50%까지 떨어져도 숨찬 증상 없이 모르고 지낼 수 있다. 나이 들면 정기적으로 폐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 투석실에 묶여 지내는 '만성신부전증'

이 병에 걸리면 2, 3일마다 투석실에 들러 네다섯 시간 누워 있어야 한다. 여행도 못 다닌다. 최대 원인은 당뇨병이고, 방치된 고혈압도 발생 요인이다. 결국에는 신장 이식을 받아야 산다. 혈당·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염식을 먹어야 한다.

#### 움직이면 어지러운 '편막협착증'

고령화로 심장 판막이 딱딱해지는 협착증이 크게 늘고 있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이 오면 뇌로 방출되는 피의 양이 줄어 어지럽고 자주 실신한다. 인공판막수술을 받거나 2000여 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경피적판막치환술이 필요하다. 심장초음파검사로 조기 발견할 수 있다.

#### 누워 지내다 골병드는 '낙상골절'

넘어지면 엉덩이 관절 넓적다리뼈 상단이 잘 부러진다. 이 때문에 인공관절수술을 받는 이가 한 해 2만 명이다. 골다공증 치료와 비타민D 공급을 받아야 한다. 하체 근육을 단련하고, 시력 관리를 하고, 균형감 유지에 좋은 체조를 꾸준히 해야 한다.

#### 간병인 신세 지는 '뇌경색 후유증'

잠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종의 뇌경색 발생 경고인 '일과성 대뇌 허혈성발작' 환자가 한 해 12만 명이다. 이 병은 증상이 느껴지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 감각이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뇌경색을 의심하고 3시간 내에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

#### 세상과 담 쌓는 '노년 우울증'

70세 이상 우울증 환자가 14만여 명이다. 통증이나 소화 불량 같은 증상도 우울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여러 만성질환을 오래 앓아도 우울증이 생긴다. 가족, 친구와 자주 어울리고, 사회적 교제를 늘려야 한다. 햇볕 쬐며 걷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우울증 예방법이다.

#### 자식도 못 알아보는 '치매'

60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를 받는 게 좋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치매는 조기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늦은 나이까지 일할수록, 평소에 걷기·달리기를 자주 할수록 치매 발생은 늦어지고 앓아도 가볍게 앓는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일수록 치매가 적다.

#### 시력 상실되는 '노인성 망막질환'

노년 실명의 최대 원인인 황반변성 환자가 14만 명이다. 황반은 망막에서 시력의 90%를 담당한다. 관리되지 않는 녹내장과 당뇨병도 시력을 잃게 한다. 모두 망막에 생긴 질환이다. 백내장은 수정체를 갈아 끼우면 되지만 망막은 회복이 힘들다. 60세가 넘으면 망막 안을 들여다보는 검사가 필요하다.

#### 얇은뱅이 생활 '척추관협착증'

척추 사이 디스크가 퇴행해 튀어나오면 척추관이 좁아져 하체로 내려가는 신경을 옥죄든다. 다리가 저려서 100m도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척추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척추 주변 근육을 단련해서 퇴행성 노화를 늦춰야 한다.

#### 맛있는 것 못 먹는 '치주질환'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후회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맛있는 음식 많이 못 먹은 것'이라고 답하는 이가 많다. 나이 들수록 씹어야 영양 섭취에 좋다. 칫솔질은 잇몸질이다. 치아와 잇몸이 맞닿는 곳을 집중적으로 닦아야 한다. 1년에 두 번은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

#### 행복한 노후를 망치는 10대 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
- 만성신부전증
- 편막협착증
- 낙상골절
- 뇌경색 후유증
- 노년 우울증
- 치매
- 노인성 망막질환
- 척추관협착증
- 치주질환







뚱뚱하지만 운동하는 사람과 정상 체중이지만 게으른 사람 중에서 누가 만성질환에 덜 걸리고 노년에도 활기차게 살까? 정답은 뚱뚱해도 운동하는 경우다.



는 피부 탄력에도 영향을 준다. 운동을 정기적으로 한 사람이 젊게 보이는 이유다.

50대는 각종 만성질환과 복부 비만이 한창 불거지는 시기다. 사회학적으로 영양 과잉과 운동 부족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50대부터 당뇨병과 심근경색증이 급증한다. 이때는 심혈관계, 내분비계 질환 위험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과잉 칼로리를 막아서 뱃살을 빼야 하고, 고기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뚱뚱하지만 운동하는 사람과 정상 체중이지만 게으른 사람 중에서 누가 만성질환에 덜 걸리고 노년에도 활기차게 살까? 정답은 뚱뚱해도 운동하는 경우다. 그들이 체력적으로 더 우수해 질병에 잘 견디고, 노쇠도 늦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체력은 국력이기도 하고 개인 삶의 무기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설정한 한국인 질병 예방 최적 체력 기준이 있다. 성인의 경우는 12분 동안 달린 거리가 중요 체력 기준이 된다. 40대 남자는 2400m, 여자는 2000m 정도는 뛸 수 있어야 한다. 50대는 그보다 100m 적다.

이런 심폐 체력 기준에 이르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 생길 확률이 매우 낮다.

엉덩이와 허벅지는 신체 근육의 70%를 차지하는데, 하체 근력 강화에 좋은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할 것을 권한다. 의자에 앉아 일하면서 아령 들기를 꾸준히 하면 상체 근력 강화에 좋다. 계단 오르는 좌우 균형감과 하체 근육 단련에 최고다. 아무튼 나이 들수록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하는 운동을 해야 신체와 정신에 좋다. 은퇴 후 필요한 삶의 지혜 테크놀로지가 재테크, 몸테크, 정테크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로, 환자도 아니면서 대한민국 의사를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다. 의사 출신으로 영상의학을 전공했고 의학박사와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농담으로 학위 모으기가 취미라고 한다. 조선일보에 '김철중의 생로병사'라는 기명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김철중의 메디컬 CS'라는 칼럼을 썼었다. 한 때 미디어TV에서 '김철중의 헬스파일'이라는 국내 최초 의료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다. 대한암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대한과학기자협회 등이 주는 상을 모두 수상했다. 2013년 7월부터는 세계과학기자연맹 회장으로 선임돼 글로벌하게 활동하려 애쓴다. 저서로는 메디컬 소시올로지 <내방현>이 있다.

##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은퇴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은퇴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 01 은퇴자산은 글로벌로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저성장·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은퇴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02 은퇴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투자라도 회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은퇴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 03 은퇴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은퇴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04 은퇴자산은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은퇴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05 은퇴자산은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은 금리는 은퇴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시기부터 그에 맞게 은퇴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황혼이혼 피하려면? 부부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바꿔라!

우리나라 60대 남녀 은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황혼이혼' 리스크가 가장 큰 타격 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황혼이혼을 피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부부관계에 대해 점검해보지 않았다면, 늦기 전에 체크해보자.

글 한혜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황혼이혼, 100세 시대 최고 리스크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결혼 4년 이내에 이혼하는 '신혼이혼'은 줄어드는 데 비해 결혼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황혼이혼뿐인가. 졸혼(卒婚), 해혼(解婚)처럼 통째로 잡히지 않는 실질적인 이혼까지 감안한다면 인생 황혼기의 이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사건이 되어버렸다.

사실 폭력이나 학대 혹은 외도 같은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혼의 사유가 자신의 삶과 행복을 찾고 싶다는 모호한 것일 때라도 “그 나이에... 참고 사시라”는 말을 하기는 힘든 세상이 되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후반기라고 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황혼이혼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대적 빈곤을 가져온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공적 연금 제도의 역사가 일천하고 연금액도 적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혼 후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고독감, 자녀와의 갈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올 초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60대 남녀 은퇴자 581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60대가 겪는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황혼이혼 리스크가 가장 큰 타격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은 다른 리스크에 비해 빈도수는 적지만 한번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체감하는 후유증이 가장 컸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혼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주로 여자였는데 요즘엔 남자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남자들의 이혼 상담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남자들의 이혼 요구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은퇴 후 가정에서 느끼는 고립감, 자녀가 성장했으므로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겠다는 의지, 여행이나 귀농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 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A 씨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 # '불행 끝 행복 시작'을 꿈꿨던 A 씨의 사례

A 씨는 지난 수십 년간 가족과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돈 버는 기계'같이 살아왔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네팔 같은 곳으로 여행 다니고 히말라야도 오르며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혼자 살다가 혹시 정말 사랑이란 걸 할 수 있는 여자가 나타난다면 단 몇 년을 살아도 순수하게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욕망도 있었다.

A 씨는 나름 이혼 준비를 꽤 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은퇴 직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마치 산 정상에 오른 사람처럼 '야호' 외치고 싶을 지경이었다. “용기가 놀랍다”고 감탄하는 친구들 앞에서 우쭐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A 씨의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돈 문제를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금이 있으니 '최저 생활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많지도 않은 연금액을 둘로 나눠야 하는 게 뼈아픈 현실이었다. A 씨를 힘들게 하는 건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것저것 신경 안 쓰

고 자유롭게 살려고 했지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심지어 형제들이나 친구들 눈치 보는 일도 잦아졌다.

A 씨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호기롭게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쫄쫄, 어리석긴'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던 아내의 눈길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고 했다. “더 늦기 전에 순수한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들은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이 “야, 꿈 깨! 순수한 사랑? 개뿔!”이라며 놀렸을 때 겉으로 호탕하게 웃었지만 자신의 환상이 외장창 깨지는 기분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A 씨는 말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혼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구나 싶어요. 막상 해보니까 (이혼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손해나는 장사더라고요.”

## 중년 부부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지켜라

이제 황혼이혼이 100세 시대의 일상과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라는 걸 인정하자. 그리고 황혼이혼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자. 그리고 은퇴 전부터, 아니 중년기부터 미리미리 부부관계를 점검해보자. 이제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부부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이제 더 이상은 미루지 말자. 이참에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자.

check 1	<b>집안일에 관심 없던 남편이 갑자기 요리를 한다?</b>
	남편이 여성처럼, 아내가 남성처럼 변화하는 시점을 백분 활용하라

나이 들면서, 특히 호르몬의 변화가 찾아오는 갱년기를 거치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찾아오는 변화 중의 하나는 남녀 간 성 역할 지각의 변화이다. 한마디로 화성에서 왔던 남자는 금성으로 가고, 금



성에서 왔던 여자는 화성으로 간다. 도대체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거나 일생 바깥일은 하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이런저런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식이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카를 융은 중년기 이후의 이러한 변화를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즉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자신 속의 여성적인 측면(Anima)을 표출해 덜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대인관계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여자들은 남성적인 측면(Animus)을 표출해 좀 더 공격적이고 독립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자들은 여성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여자들은 남성적인 자질을 드러내고, 바깥으로 향하게 된다.

즉 나이 들수록 남자들은 친밀성, 의존성, 관계 지향성이 증가하는 반면 여자들은 공격성, 자기주장, 자기중심성, 권위주의 성향이 높아진다. 여자들의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남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런데 이처럼 남녀 간의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황혼기 부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이 변화를 잘 활용하는 부부는 각자 인간적으로도 성숙해지고 행복해지며 당연히 황혼이혼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과 공격이 일상화될 경우 부부 사이는 급격히 멀어지거나 갈등과 싸움으로 얼룩지게 된다.

따라서 오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부부는 갱년기 이후에 찾아오는 심리적 변화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교차하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라. 생각해보라.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를 모두 익히고, 양쪽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변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부부 사이는 저절로 좋아지고 인생은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부의 사전에 황혼이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check 2 대화만 했다 하면 갈등으로 이어진다? 부부 대화에 '나 전달법(I-message)'을 사용하라**

황혼이혼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부부 갈등으로 생기는 분노 폭발이라고 생각한다. 부부간의 조그만 갈등이 폭발해 폭력이나 극단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말이다. 그래서 작은 갈등이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혹시 부부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보시기 바란다.

- 조그만 일에도 큰 싸움으로 번지는 대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가?
-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가?
- 이야기하면서 서로 시선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는가?

위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대답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하다는 표시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나 전달법(I-message)’이다. 나 전달법은 서로 간의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즉 상대방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졌을 때 ‘나’를 주어로 하는 의사 전달법으로서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



나이 들수록 남자들은 친밀성, 의존성, 관계 지향성이 증가하는 반면 여자들은 공격성, 자기주장, 자기중심성, 권위주의 성향이 높아진다. 이 변화를 잘 활용하는 부부는 각자 인간적으로도 성숙해지고 행복해지며 당연히 황혼이혼도 피할 수 있다.

하는 ‘You-message’와는 대조적이다. 올바른 I-message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3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 없이 서술한다.
- 2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서술한다.
- 3 이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다.

I-message는 부부간의 진정한 교류와 대화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준 ‘구체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그러다 보면 의외의 소득이 생기기도 한다.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건 사실인데, 막상 그 행동의 ‘구체적인 영향’이 생각나지 않아서 화내기를 멈추는 경우가 그러하다. 예를 들면 자신이 원하는 식당에 가지 않고 다른 식당을 예약한 아내 때문에 화가 난 남편이 있다고 치자. 그가 I-message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다른 식당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에게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웬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식당에 갔다고 해서 자신에게 큰 손해가 오거나 괴로운 일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화도 풀리고 만다.

물론 I-message라고 해서 모두 부정적인 감정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I-message도 있다. 기분이 좋고 관계가 좋을 때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작은 호의에 대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행복하고 힘이 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은퇴 후에 겪게 되는 부부 갈등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뉴스를 보라. 부부간의 ‘도를 넘는’ 공격성과 자기중심성이 끔찍한 ‘분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부부간 갈등을 그때그때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나 전달법을 통한 ‘소통’을 실천하자.

**check 3 가족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라! 자녀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배우자에 대한 투자는 늘려라**

서구 국가들에서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결혼 기간에 따라 U자형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신혼부부기에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가 중년기에는 자녀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점차 감소하고, 그러다가 자녀를 모두 독립시키고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부터 결혼만족도가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라의 경우는 반대다.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결혼만족도가 결혼 기간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심하다. 즉 결혼 초기에는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가 중년기 이후부터 점점 낮아지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겠지만, 나는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중심이 부부가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부부들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느라 부부관계를 희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한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살면서 기리기 아 빠 노릇도 기꺼이 감수한다. 자녀가 어릴 때는 그렇다 치자. 더 심각한 건 자녀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도, 결혼한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점이다.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 막상 부부간에는 공통 관심사도 없고 재미도 없다. 자식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부부도 많다.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싸움이 시작돼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부부들은 자녀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투자하는 반면 배우자에 대한 투자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

부부간에도 투자는 필요하다. 한번 사랑했다고 해서 부부간의 사랑이 변함없이 지속하리라고 기대한다면 착각 중의 착각일 것이다. 돈도 중요하고 자녀 양육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부부간의 사랑을 지키고 키울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계를 지켜야 한다.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부부의 삶에 좀 더 집중해야 한

다. 젊었을 때 고생한 것에 대한 성과를 배우자에게도 돌리고 부부 중심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성인이 된 자식을 돌보느라 부부간의 삶과 행복을 모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무책임해져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check 4** 프랑스에서는 여름휴가 직후 이혼이 급증한다?  
더 늦기 전에 부부가 함께 노는 연습을 시작하라


언젠가 신문에서 ‘프랑스에서는 여름휴가 직후 이혼이 급증한다’라는 기사를 읽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다. 긴 휴가를 함께 보내면 부부 사이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니 수궁이 갔다. 휴가 후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는 휴가 기간 중에 부부가 서로 일대일로 직면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 평소에는 부부관계를 대체할 것들이 많다. 설사 부부간의 사이가 소원하다 해도 일에 파묻혀 지내거나 자녀의 뒷바라지에 열중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휴가 중에는 이 모든 대체가 불가능하다. 일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친구를 만날 수도 없다. 그저 남편과 아내가 있는 그대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하는 의문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더 참을 수 없어서 휴가 직후 헤어지는 것이다.

은퇴 후의 이혼, 황혼이혼도 마찬가지 아닐까? 은퇴 후는 인생의 휴가 기간과 같다. 자녀는 커서 부모 곁을 떠나고, 일에서도 해방된다. 이때 사회적 성공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배우자와의 관계이다. 즉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다. 만일 부부 사이가

좋다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은 쉽고 삶은 풍요롭고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면? 정말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은퇴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위기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겪지 않으려면 가장 비싼 중년기부터 부부가 함께 놀면서 서로 대면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그런 기회를 통해 둘 사이의 관계를 미리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은퇴와 노년이라는 즐거운 휴가를 맞았을 때 이미 너무나 멀어진 사이를 고통스럽게 발견하곤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나중에 돌만 남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당황하지 않도록, 긴장과 갈등만이 남지 않도록 말이다.

더 늦기 전에 당신의 부부관계를 점검해보시라. 따로 노는 게 더 자연스러운 부부는 아닌지. 만약 따로 노는 부부라면 지금부터라도 함께 노는 연습을 해보시라. 함께 노는 시간을 통해 정서적 친밀감과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연습하시라. ‘은퇴하고 나면 같이 놀아야지’라고 미루지 말라. 무얼 하며 노느냐고? 100세까지 산다면 같이 놀아야 할 날도 많으니까 둘이 함께 개발하시라.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보면 사이 좋은 부부에게는 일상이 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낙엽을 쓸다가 던지기도 하고, 눈싸움을 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놀고, 만약 당신이 함께 노는 법을 잊어버린 부부라면 그런 영화를 함께 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시라. 

**한혜경**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 학위와 사회복지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40대 초반에 대학으로 옮겨 노인 복지를 세부 전공으로 연구하며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문화일보, 여성신문 등에 칼럼을 썼으며, 동아일보에 ‘한혜경의 100세 시대’를 연재했다. 저서로는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가 있다.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한 장면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보면 사이좋은 부부에게는 일상이 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낙엽을 쓸다가 던지기도 하고, 눈싸움을 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놀고, 만약 당신이 함께 노는 법을 잊어버린 부부라면 그런 영화를 함께 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시라.



# 자녀들에게 '부자 되는 기초 체력'을 키워주라

글 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의 부모는 그를 어떻게 키웠을까?

만일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젊은 갑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아버지를 만나서 단 하나의 질문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물어보겠는가?

아들의 재산? 아니면 며느리 프리실라 찬이 시부모를 대하는 태도? 아마도 대부분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물어보고 싶을 것이다. 실제 2011년 2월 4일 마크 저커버그의 아버지 에드워드 저커버그가 지역 라디오 방송국 부스에서 청취자로부터 받은 질문도 '교육'에 관한 것이다.

“저커버그 씨,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요?” 저커버그의 대답은 이랬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제가 운영하는 병원의 사무실 근처에서 뛰놀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렸을 때부터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접했지요.”

단지 컴퓨터를 일찍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크 저커버그의 거대한 성공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저랑 제 아내가 항상 믿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어떤 한 방향을 강요하거나, 그 방향으로 조종해나가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장점만 찾아내면 그 장점을 키워주자고 마음

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열정을 보이면 그걸 개발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아버지 본인은 성공한 치과의사였지만 자신의 삶의 기준이 아닌 자녀의 열정이 향하는 곳에 같이 눈을 맞추고, 지원하고, 응원하고,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웠다. 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자 컴퓨터 강좌를 찾았고,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자 이들 과목을 잘 가르치는 유명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호기심과 열정은 창의성의 원천이다. 마크 저커버그의 부모는 자녀들의 호기심과 열정을 북돋아주고 독려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창의적 인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다.

세상의 부모들치고 자신의 자녀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당수의 부모가 자녀의 명문대 입학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도 이런 바람에서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듯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인생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생의 문제는 대개 돈과 관련된 모습으로 찾아온다.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모으고 굴리는, 다시 말해 돈을 다루는 능력이 필

수적이다. 이 필수 능력을 배우는 데 가장 적합한 본보기 중 하나는 부자들이고, 특히 그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체력'을 어떻게 키워줬는지를 알 수 있다면,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자들의 자녀 교육>은 학업 성적 못지않게 자녀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딱 맞는 교재라고 할 수 있다.

## 빌 게이츠·록펠러·이건희 등 세계 최고 부자들의 자녀 교육법은?

이 책에는 앞서 소개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해 모두 10명의 부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MS사의 창업자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는 속설을 뒤집고 대를 이어 부를 이어가고 있는 록펠러 가문, 당대 최고의 부자로 부자가 되는 법을 책으로 썼던 석유왕 폴 게이티, 1980년대 최고의 최고 경영자(CEO)로 인정받았던 GE의 잭 웰치, 동네 슈퍼마켓을 세계 최대 할인점으로 키워낸 샘 월튼과 그의 자녀들, 시계 외판원에서 아시아 최고 부자로 등극한 리카싱,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이진희 회장, 정부의 보조금을 받던 미혼모에서 글쓰기 재능 하나로 수조 원을 벌어들인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

이들 중에는 빌 게이츠나 폴 게이티처럼 부자 부모를 둔 이들도 있고, 샘 월튼과 조앤 롤링처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쌓아올려야 했던 이들도 있다. 이들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워런 버핏 같은 인물도 있다. 버핏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로부터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가 쌓은 부(富)의 탑은 고스란히 그의 작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현철 지음/ 이문/  
1만4800원

품이다. 집안 환경도 다르고,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의 크기도 같지 않지만, 이들은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성공 방정식을 써왔다.

10명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굳이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만일 자녀 용돈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잔돌이 교육'으로 유명한 록펠러 집안의 용돈 교육을 읽어보면 된다. 근로의 중요성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면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 가족의 얘기가 안성맞춤이다. 월튼의 자식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상점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정보기술(IT) 시대 창의적인 인물로 자신의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들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빌 게이츠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책과 가까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했고, 빌 게이츠는 독서광으로 자라났다.

명문대학이 삶의 안정성과 성공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지났다. 정해진 성공 방정식도 없다.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돼야 한다. 독립적인 자아를 갖기 위해서는 사과의 독립성과 물질적 독립성의 두 기둥이 바로 서야 한다. 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 체력'의 내용을 잘 알고 실천하는 힘이 필요하다. 



2017 · Vol. 02

발행일 2017년 8월 7일 발행처 (주)동아이앤디 발행인 김수곤  
편집디렉터 김경화 아트디렉터 윤상석, 전상미 교열 배영조  
주소 (03187)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인쇄 (주)중앙문화인쇄  
가격 5000원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행복한 은퇴 발전소〉는 연간 4회 발행되는 은퇴 매거진입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 국내 1년 구독료 1만9000원(택배비 포함)
-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02-361-1030/psj09@donga.com
- 계좌번호 국민은행 870-01-0149-959, 예금주 동아일보(CMS코드 77777)

#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를 미래에셋대우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고객께 더 많은 부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미래에셋의 지혜와 경험을 모았습니다.  
지금 미래에셋대우에서 세계의 우량주식을 쉽게 만나십시오.  
준비된 미래에셋대우 웰스매니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33개국 해외주식거래 서비스

- 해외네트워크 기반의 강력한 글로벌 리서치
- 매월 우량종목 정보와 트렌드 정보 제공
- 24시간 해외투자 전용 주문 데스크



[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 1588 - 6800 ] ■ 당사는 이 주식거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  
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주식거래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0~1.00%(국가별 거래수수료 상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

노후가 행복해지는 습관

# 행복한 은퇴 발전소

김과장도 박차장도 이부장도 궁금한  
연금과 투자, 노후준비의 모든 것  
매주 30분 팟캐스트 '행·은·발'에서 들어보세요!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 발전소'를 만나는 법

안드로이드 폰 : '팟빵' 앱 설치 후  로 검색

아이폰 : podcast 앱에서  로 검색

**MIRAE ASSET**  
미래에셋은퇴연구소